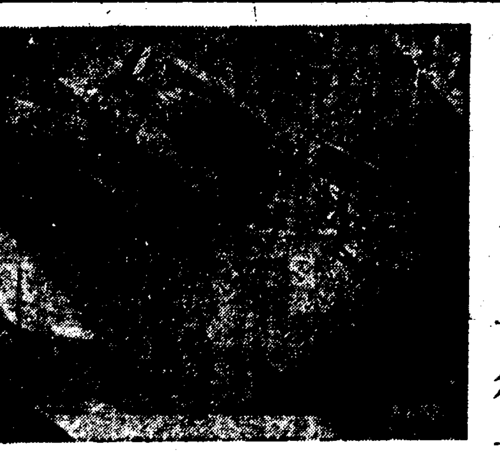
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發行人 宋鎭禹
編輯人 薛義植
光化門一九〇〇
定價 一個月 一圓

伊機의首都空襲으로 에國代表覺書提出

"市街地에機關銃亂射"

[제네바十七日發同盟] 에치오피아代表는 十七日夜 아베놀事務總長에 書翰을 發하야 伊太利軍의 行動에 對하야 如左히 抗議하엿다

七日午前八時 아디스아베바를 空襲하고 市街地에 機關銃의 猛射를 加하엿는데 [illegible]



伊國强行軍 一路에國首都進擊

[아스마라十七日發同盟] [illegible] 伊太利軍은 [illegible] 一擧에首都아디스아베바를 [illegible] 部隊는 十七日又復 有力 에치오피아軍과 [illegible] 잇다 한다

에皇帝退位說 聯盟은不信

[제네바十七日發同盟] 에티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 一世가 退位를 決意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illegible] 무솔리니首相 一派의 [illegible] 退位決意와 [illegible]

十八國委員會 五月中旬再開

[제네바十七日發同盟] 伊國政府의 [illegible] 十八國委員會의 [illegible] 五月中旬까지 [illegible] 新制裁案을 [illegible] 工作을 行할수잇으리라고 觀測된다

英、新作戰方針下에 地中海防備를强化

特히潛水艦裝備에非常優勢

伊國의反英宣傳盛行

[런던十七日發同盟] 十三人委員會의 和平工作失敗之後에 [illegible] 海軍當局은 十六日 [illegible] 地中海方面에 [illegible] 防備를 一層 强化 [illegible] 英國海軍의 決意를 說明하는 것이다 [illegible] 地中海에잇는 英艦은 合計百九十 [illegible] 巨大한것이다

英、和平確立까지 制裁繼續意向 專門委員會召集?

[제네바十七日發電通] 英國은 二十日의 理事會와 並行하야 制裁實施專門委員會를 召集하야 [illegible] 和平이 確立되기까지에는 現行의 制裁를 繼續하려는 英政府의 意向을 보이는것으로 解釋된다

伊國代表强硬

戰鬪行爲中止는不能

聯盟側和協工作을斷念

[제네바十七日發同盟] 十三人委員會 [illegible] 伊國代表部는 [illegible] 十七日 [illegible] 聲明하엿다

佛外相壽府에 和協交涉決裂로

[파리十七日發同盟] 佛外相은 [illegible] 十九日 [illegible] 歸還 [illegible]

伊政府는重大視

土耳其政府의 海峽再武裝은 獨逸의라인占據와同樣

[로마十七日發同盟] 土國政府의 海峽再武裝斷行에 對하야 伊國政府當局은 十七日夜 如左히 言明하엿다 아직 確報를 받지못하엿으므로 批判은 保留하는수밖에 없으나 萬一 事實이라고하면 獨逸의 라인非武裝地帶進駐와 同樣의 [illegible]

聯盟은冷靜 따海峽再武裝

[제네바十八日發電通] 土國政府가 十七日 突然 [illegible] 海峽地帶 [illegible] 再武裝 [illegible]

英國報道에 英政府愕然

[런던十七日發同盟] [illegible]

에皇帝退位說과 伊政府의態度

[로마十七日發同盟] 에國皇帝 [illegible]

에國政府의 緊急閣議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同盟] 에國政府는 十七日 宮廷에서 緊急閣議를 開催 [illegible]

에國皇帝依然 北部戰線서活躍! 데市陷落도否定

[아디스아베바十七日發同盟] [illegible]

土軍非武裝地에進駐 各要塞地帶를占據

三通信社는事實否定

[이스탐불十七日發同盟] [illegible]

伊國의强硬意見 佛大使에傳達

[로마十七日發同盟] 무솔리니首相은 十七日 [illegible]

佛選擧終了까지 制裁問題保留

[제네바十七日發同盟] [illegible]

參謀本部會議 콤류니케發表

[런던十七日發同盟] 英、佛、白三國代表는 十七日午後 [illegible]

土國의再武裝 黑幕은獨逸? 유고에서도支持

[제네바十八日發電通] [illegible]

治外法權撤廢 幹事會案全部決定 關東軍司令部發表

[新京十七日發同盟] [illegible]

廣田首相 鄕軍의協力을要望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蔣氏各將領招集 西安會議를開催

北中問題를討議?

[北平十八日發同盟] [illegible]

比島土地問題 調査完了

[마닐라十七日發同盟] [illegible]

李宗仁軍司令 "民族解放戰"力說

[東京十八日發同盟] [illegible]

四省會議開催 新外交策決定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第二回外務省議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十八日南大將 現役勇退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東亞一短評

□ 科學데이에 發明家表彰!。不過한 그苦心에 一部는 넉넉。

□ 國政革新의 第一聲으로 內閣制度의 改革說。[illegible]

□ 再武裝한 土耳其, 다다넬스海峽로 進軍。나선 걸음이 [illegible] 그러고 말고。

□ 問題續出로 聯盟은 [illegible] 特効藥 없으니 [illegible] 할가?

앞은곳에!

신경통 류-마지스 두통 치통 견비증 타복상에

압풍을곳게이게함…… 관성고질이되야 근육섬부와관절에 쑤시고·생기며 붓니고 앞은神經痛 류-마지스 關節炎의疼痛에는 사로메치-르를 앞은곳의피부에발느시면 그럭케심하든 고통이곳게이게되며 밤잠을 잘주무시게만듭니다。

부은곳 삐인곳에…… 皮膚表面에 아무 고장이업시 筋肉深部가붓고 쑤시고 고통을주는곳과 運動競技 혹은평지낙상으로 접어를거나 삐인곳에발느시면 皮下筋肉과血管에吸收되여서 병근원을다스리며 炎症과鬱血을삭게하고 부은곳을게이게하며 고통이없어지게됩니다。

피곤함을회복식힘…… 運動競技 勤務過勞 또는먼길을걸어서생긴 근육과관절의疼痛 疲勞에는 환부에溫感을주며 鬱血을삭게하고 부은곳과 疼痛과 疲勞가一掃되야원기잇게몸을회복식혀줍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어느가정에도 한개씩준비하시사 頭痛…齒痛…견비증…당길니는데…허리와다리앞은데…피부가가려운병에…凍傷의豫防에…목이앞을때…빈대 벼룩에물닌때 또는방지에사용하시면 속처됨으로 한시도잇지못할약입니다。

陸軍 承認藥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サロメチール
사 로 메 치 ー 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田邊元三郎商店

ClibPDF - www.fastio.com

初等敎育擴充과 敎育費增稅案

移動座談會

第五席 初等敎育者

設備는 質朴主義로

增稅라도해서擴充하라

"누구는붙이고누구는떨갈가? 入學期만되면잠을못자오"

東五普校長 金源榮氏 談

초등교육의 확충을 위하야 교육비 증세를 단행한다는것은 부득이한일이라한다. 어째든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하여야할데 배울자리가없어서 배우지못하는 참상을 정하고잇으므로 증세라도하여서 배울자리는 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증세방침의 내용이 어떠한것인지는 모르되 그방법만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현재 경성부민의 대부분은 사실에잇어 힘에넘치는 부담의 중압(重壓)에 고통을받고잇는까닭이다. 경성과같은 곳에서 년수입 三百원쯤으로서는 도저히 사라가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잇지 안흐냐? 경성부민의 대부분은 몃푼되지 안흔 수입으로서 아동을 교육시켜야 할것이며 또 세금으로 물어야 할것이며 먹고살아가야할것이니 그고통은 실로말할수업는 정도일것이다.

그러므로 될수잇으면 증세쯤으로 생활의 위협은 받지안흘사람들에게 증세할것이요 그러치안히도 곤궁한 생활상태에 빠져잇어 그날그날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방침을 쓰지안핫으면 조켓다.

○

내가 초등교육에 관계를 하고잇어 다소 그방면에 관심을 가지고잇게된관계인지는 모르되 금후 경성부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의 외관(外觀)의 호화(豪華)를 중시하지안핫으면 조켓다. 물론 교육재원에 풍족한 여유가 잇으면야 외관의호화로움까지도 조켓지 마는 사실상 그러한 처지에 잇지 못하면서 구태여 외관 사치를 주로삼을것이 무엇이냐? 나는 만약 경성부에서 종전부터 그러케 호화로 안햇으면 초등학교 입학난은 벌서 해소될줄로믿는다. 현재 경성부의 一개공보교는三개학교를 능히 만드러낼수잇는경비를집어먹고잇다.

물론 그경비로 내용의 충실도 꾀하엿겟지만 대부분은 외관의 호화를 주로삼엇던 결과에그와같이 만흔경비가 걸린것이다.

이와같이 타산하면 현재부내에는 二十五개소 공보교가잇으니 그二十五개소 공보교에든경비로 七十五개의 학교는 만들지안핫겟느냐? 그리하엿으면 조흥하고 입학난은 자연해소되엇을것이니 금후 초등교육확충을 계획하는 이들은 이점에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齊洞公普校長 朴勝斗氏 談

三월의 입학기는 우리의 수난기(受難期)다. 잠결(寢食)없이어린이를 교육에 열중하는 우리들은 三월의 입학기가 가까워오면 밤에 잠들어이루지못하는 형편이다. 규정된 모집인원수를 훨신 초과한 입학지원서가 책상머리에 또박 또박 싸힐때 어린이의 교육을 천직(天職)으로 알고잇는 우리들이 어찌 한때라도 편안한 잠을 이룰수잇겟는가? 또박또박싸히는 그 지원서를 어떠케 처리하여야 할가? 아담한 어린이들을 향하야 어떠한 태도로 "낙선"이라는 무자비한 소리를 하여야할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때 한두번이 아니요 불행히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로는자체의 입학률을 능히 뚤흐고 들어가보자는자가 비집흐는 교육을 넘우나 보잣것업는 일이다. 입학사정(入學査定)이라는것도 어느정도가 잇는것이다. 적어도 지각(知覺)이 발달한 년령에 달한아동을 상대로한다면 보통학교를마친 아동들은 어느정도의 지각도 남 만한 수양도잇스며 또 년령에도달햇으므로 그의 사람된품을 능히 사정할수잇스나 『엄마』 『아빠』의정도 지에서 겨우 뚤흐나온 六, 七세의 천진란만한 아동은 도저히 그 상대가 될수없는것이다. 우리가 입하사정할때 실제 당하는바이지마는 선천적 저능아(低能兒)가 아닌 아동들은 『메탈테스트』 『정도에 그치는 입하사정의 난관은 누구나 통과할수잇는 능력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우리는 규정된 자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뽑아야할 아동들을 모아 떠러트리는 일이 잇으니 그만큼 아동들에게 그러한 교육을받게하여주어야할것이다. 그리하야 입학하가지 못하고만다. 그리하야 우리는 적어도 한명이라도 더 수용하여야할 잇어서는 수입학지원 아동들을 모다 들어가 게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가난한사람이게서 반드시 사정(事情)을 하는사람보다 여유가 잇으리라는것을 단언할수도 잇을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은 담세력(擔稅力)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시키지안핫으면조켓다.

나는 제적하고잇는 학교가북촌(北村)의 중심지에 잇는관계인지는 모르되 점잖은 하부형들을 만나는 기회가 만타. 그럴때 마다 그들은 기부라도 하겟으니 하로바삐 학교를 확장하라는 부탁을 받고잇다.

이와같이 일반 학부형들이 자제의 교육에 성의를 가지고잇는것을 볼때 교육을 위하야 다소힘에 넘치는 부담을 시킨데서 불평을 말할사람은 절대로 없을줄로 믿는다. 【以上文責記者】

◇사진 金源榮氏 朴勝斗氏

◇사진 金源榮氏 朴勝斗氏

○

그러나 증세방법에 대하야 한무어마다 말씀하겟다. 나는 서울에 오기전시골서 지낸하사(學事)를 맡아본 경험이잇엇다. 그때스스로 당하야 본바에의하면 갚원이 나 非其의학교비를 내는부호들은 十전의 하교비를 내는가난한 사람들이 대단조화엿으나 반면주조사할때 직가적으로 계탑될수잇는 현재의 남의 남녀성적은 대개불량하엿엇다. 그원인은 실제호둔상황을 살피면서 실로 그날그날의 호구(糊口)가 문제인그들에게는 사실 상 수十전의 여유가 없엇든것이다.

○

그러타고 가단한사람은 그러고 종은 능히 우리 용납할수잇음을 믿는다.

自動車、列車와衝突

乘客六名死傷

昨晝、瑞興西郊의慘事

奇蹟的으로 二名만은 無事

【서흥지국전보】 十八일 오후一시十五분경 서흥(瑞興)역 서쪽 철도길목에서 부상釜山행 『노조미』급행열차와 조철 세무선(黃州—수원行?) 자동차와 충돌하야 운전수 崔문 八명중운전수는 경상을입었으나 一명은 즉사하고 四명은 중상을 당하엿으며 그외 一명은 기적적으로 무사하엿다한다. 그리고 운전수는 경상을 입엇다는데 현장은 선업이 일리하는 처참한 현상이엇다 한다.

그런데 이 철도길목은 번번이 불상사를 일으키는 지점이라 한다.

- 同 朴一宗(三〇)
- 同 金嘉山(二〇)
- 同 徐大成(三〇)
- 同(舊川驛)浦源德太郞(未詳)
- 同 姜千日(未詳)

拉捕船引渡

交涉不進行

外事課、海參領事 通해交涉

被拉朝鮮人은七名

지난九일 연해주(沿海州) 해상에 출어하다가 소련 제우國 경비선에 잡힌 제三 축성환(祝成丸)(四七噸)외 승조원 十二명의 인도표섭에 대하야는 총독부 외사과와 외무성 외무성을 통하야 해상위영사와 소련당국과의사이에 절충이 거듭되어잇는바 잡히어게 협서十일에 미친 오늘에도 아직 해결될가망은없는모양인데 당시 축성환에 빗다가 소련지에 구인되어잇는 어부는 다음의 十一명이다.

- 長崎縣南高來郡島原町川所五〇
- 南神府縣町一四
- 船長 大村 竜吉(三一)
- 咸北端川郡漁郞面(本籍新川縣)
- 機關長 佐竹 榮吉(三七)
- 同(新潟縣)
- 船員 柴田 壽六(二〇)
- 同 車王 鳳(三〇)
- 同 黃蓮 浩(三七)
- 漁夫 李 成 鳳(三〇)

南門市場商人

聯合運動會

新綠의五月三日첫공일에

東大門外에서開催

부내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에서는 一년의 제一회 봉시장상인연합회 대운동회를 오는 五월三일 동대문밖 영도사들어가는데 시산 운영야구장에서 행할터인데 대회순서에 방금 분망중이며 임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엇다고 한다.

會長 崔亨植 副會長 李英俊 總務部 李英俊、吳興悅、孫仁泰 林聖根、趙周八、金興植 ……

마아닌犯人

화만내는警察

범어리 절도를 잡아가지고 어쩔줄을 모르고 애쓰는종로경찰서에 이번에는 벙어리도 아니면서 말아니하는 피의자 一명을 잡아노코 화를내는중이다. 그는 二十七、八세 가량된 사나이로서 종로경찰서원이 十八일 봉지하기를바라나고 한다.

朝鮮菓子商

聯合大運動

조선과자상조합(朝鮮菓子商組合)주최의 제十회연합대운동회는 예정과같이 오는 四월二十九일에 장충단공원 운동장에서 열터인데 아시신청을 하지못한 상점은 금명간 남대문통 四정목 九번지 경성제과상회안의 봉조합사무소로 봉지하기를바란다고 한다.

새벽四시경 청진정(淸進町)을 순찰중 두사람이 잇서놈을 하여둥그는것을 발견하고 조사한결과한사람은 종노一정목 三九 유환복(劉丸福)(三〇)으로서 그의집안방에 드러가서 전용품고 드러누엇든 피한을 발견하고 그자리까지 수겨하야 싸우는중인것이 판명되엇다.

그러나 안방에 드러갓드라는 사나이는 주소성명을 一체말하지아니하므로 그대로 본서에 인치하엿으나 일반탐래보고 엄포를해보아도 입을 딱다물고 말을아니하야 취조계원의 화를돋리고잇는중이다.

本報五千號記念贈物

本社特選 朝鮮道別現勢地圖

第七回 忠淸南北道 四月下旬配送

(別册寫眞 四七五 인세트印刷)

이地圖는 道別地圖로서는 朝鮮初有의 最大 最精할것으로써 府、郡、面、洞의 行政區域과 山系 河海의 全般地勢는 勿論이요 鐵道、道路와 產業分布特히 現下萬人이矚目하는 金銀銅 其他 重輕金屬의 分布狀態가 一目瞭然하며 더욱히 市街及里程地圖가 잇고 人口、財政、敎育等數十種의 極히 要領잇는 統計圖表가잇어서 現勢地圖로서 가질수잇는 內容에 萬一의 遺漏가없읍니다. 道를 따라서 或은 新聞一頁大、二頁大로 縮尺은 五十萬分之一이며 一年四次定期로 發行하야 그때의 月定讀者에게 配付하기로하는것입니다. 朝鮮의 現勢를 알어야할 二千萬 우리는 반듯이 이地圖를 처음부터 끝까지 十三枚를다 모아야 합니다.

附圖와圖表

■道內歲入及歲出	■道內林野面積	■道內營農種別戶口	
■道內名所古蹟	■道內敎育狀況	■道內文盲統計	
■道의位置及面積	■道內府郡別人口、邑面里數	■忠州市街圖	
■道內行政區劃	■道內職業別戶口	■淸州市街圖	
■道內耕地面積	■道內總生產額	■大田市街圖	

年四次三個月마다定期發行

南쪽五道의人夫

二千餘名移送

이달二十九日까지에는完了

北朝鮮各工事場으로

총독부경무국및 토목협회알선하에 해산선(대창조) 길전제지공장(신고조) 회령구부공장(대림조) 동해북부선(남겸조) 라진축항(대창조) 라진축항(지기조) 만포선(간조)의 七토목건축공장현장에 경북、전남북、강원、충북의 오도에서 인부二千六百四十六명의 이주는 정식결정、四월二十九일까지 완료되리라 한다.

輯安遭難同胞에

慰問金傳達

◇늦은거운 感謝狀

본사에 의탁한 집안현 재난동포위문금(輯安縣災難同胞慰問金) 五十一圓七十전은 지난三월二十五일 본사 초산지국(楚山支局)을 통하야 전달하도록하엿는데 그동안 압록강해빙기로 인하여 교통차단이 되엇섯는데 지난十三일에 야 개통이되어 집안외분구(外岔溝) 조선민회를 방문하고 조난동포에게 전달하여주도록 의뢰하엿섯는데 이를 조난동포에게 곤분배하여주는동시에 동지주민과 민회장 한유정(韓裕政)씨로부터 본사에 감사장이 왓다.

窃取金二萬圓!

土地사고 遊興타가

마츰내留置場身勢

본적을 전남화순군 화순면사정 리(和順郡 和順面鄕廳里)에 두고 부내합동정(蛤洞町)에 잇는대구여관(大邱旅館)에서 묵고잇든 나철(羅千石)(三二)은 지난 十六일에서대문서에 검거되어 엄중취조를 받고잇는중인데 그는외에도 재작년가을에 만주국길림(吉林)에잇는 신곡조(新谷組)의 발동기경편철도 주식회사(發動機輕便鐵道株式會社)안에잇는 금고를파괴하고 현금一萬九千원을 절취한범인으로 판명되엇다 한다.

전기 나천석은 일즉이경성자동차학교를 졸업하고 소화九년二월경에 일확천금을 꿈꾸고만주로건너가게되엇는데 도만즈시 길림에잇는경편철도회사에 취직되어 동회사의 경편철도를 운전하게되엇는데 동년九월경에 동회사에서인부임금으로 현금一萬九千원을 금고속에 너둔것을 알고이를절취할생각으로 그달밤에 금고가잇는실내로 침입하야 금고를파괴하고 현금一萬九千원을 절취하엿다한다.

그러나 당지경찰이나 동회사에서는 전기나천석이범인인지는 조금도 모르게되 엇다는데 그후 약一개월동안 근무하다가 나천석은 그곳을 그만두고 조선으로돌아온후 절취한 금전으로 시골에다 一萬二千원에상당한 전답을 사둔외에 남어지돈은 그동안 유흥비로 소비되엇다는데 취조에따라 나천석은 길림경찰서로 불원압송되리라고 한다.

培英學院同窓會

시내견지정(堅志町)에잇는 배영학원(培英學院)에서는 금十九일 요일에 그학교졸업생이 모교에모혀 동창회를 연다는데 졸업생과 관계잇는 이는 만히 참석하기바란다하며 회가끝난뒤에는 자미잇는 이야기가 잇다고한다.

今日부터科學데이

◇今日부터科學데이……本社에서寄贈한포스타

流浪하든雇用女

金指環을窃取

평양(平壤)한 고용녀 부내루상동(樓上洞) 一六六번지 박성녀(朴姓女)의집 고용녀로잇는 이을전(李乙全)(一八)은 十八일 오후三시경 자기주인의 금지환한개를절취하여가지고 도주하엿다 한다. 이 사실을 발견한 주인은 소관종로서에 그사실을 보고하엿으므로 즉시활동하야 그를체포인치하야 고엄중히 취조중이라 한다.

湯原에反滿軍

【하르빈十七일발동맹】 十七일 하르빈 모소의 보고에의하면 빈강성탕원현(濱江省湯原縣)에 유력한 반만군이 내습하여 현성은 위험에빠젓다는데 상세한것은 아직알수없다한다.

日曜講話

▼覺皇寺
午前十一時 朴明植氏

▼新門內敎會
午前十一時 白炳奎氏

▼倉川監理敎會
午前十一時 【宋定】
午後八時 【李和】 朱鉉成氏

▼阿峴監理敎會
午前十一時 金洪善氏
午後八時 昇理 白樂濬氏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새인간
午後八時 감추인動力 李東旭氏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午後七時三十分 失物을찾자 申公淑氏
潛在의勢力 申公淑氏

▼復活社講堂
예수의出世 金觀植氏
午後八時 바울의人生觀
예수를누구로아느냐 鄭寅熙氏

▼敎徒의本分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宋定】

▼鐘路監理會
午前十時半 예수의出世 金觀植氏

▼英語講話
午後二時 英 人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講話
午後七時半講話 예수와同行하자 李承鋼氏
生의超越的根據 金觀植氏

▼貞洞第一禮拜堂
上午十一時
下午八時 北亞山의연인부덕 信徒의七面 金應泰氏 李鎬亨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正日學校職員委任禮拜)
午後八時 人格的訓育 朴春照氏
生의愛歷 金鉉淳氏

오늘의天氣

흐렷다조왓다합니다

★그날그날★

(陽)四月十九日(日曜日)
(陰)三月二十八日(辛未)

日出前 五、五三	月入後 七、一一			
日入前 四、〇一	月入後 四、三六			
滿潮				
仁川 前	三、〇五	後	三、三〇	
鎭南浦 前	七、二〇	後	七、四五	
釜山 前	六、四五	後	七、一〇	

田効散

회 효 산

이야말로정말安心하고먹을수잇는

가장進步한重寶藥・好評賣行第一

모르면은 크나큰 損害!

數만흔藥의 選擇에就하야

어딥없이偉大한醫藥界에속아넘어가는것은現人의恥辱입니다. 왜몬

適時에適劑

돈씨이만하는것이나、비록身體에有効한成分이라도、實驗으로그때에必要가없는藥이라거나、所用은되지마는너무性質이劇烈한것은藥하지아니하면안됩니다. 그것은質劑하야費用의損失이나不愉快뿐이아니라、健康上一生의不幸을招致하는때문입니다.

齒痛이突發

하엿을때에、應急의藥을服하거나、或은醫師가使用하는鎭痛劑를服用하거나하는것은例外로、누구나아실것입니다. 또一般에頭痛이날때、醫師에서藥을服用하는것은、가마타고外出하는式의時代錯誤的內服療法입니다.

무엇보다도安全迅速하고副作用이絶對로없는田効散을服用하십시오. 齒痛頭痛이나神經痛을鎭靜할뿐아니라腦神經을爽快케하는効果가잇읍니다.

神經痛에도

同効散은 特히有効하다고하야近來어느곳의藥店에서나寫賣하야잘팔린다는데、이것은東京帝國大學附屬病院에서、神經痛의特効藥이라고推獎하시는薬局이라고推獎하시는藥이니、一度服用해보십시오. 一生의幸福을試驗해보시어 特히實驗해보실것입니다.

本舖 森田製藥所 振替東京八九〇八番

全國各藥店에잇소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社說

中國市場에서의 列强鬪爭

一

二

三

計數上으론入超減少나 實質的으로惡化

◇카氏의 調査發表한 內容 昨年度中國國際收支

◇密輸三億元

◇資本의逃避

各官衙의用紙도 兩面을使用하라

체크內務省의嚴達

一、文書節約에힘쓸것

一、形式的의 報告로時間을 浪費치말다

一、重要한紙의 使用을中止하고 紙의兩面을 使用하야 되엇대없는 書類保存은 廢止하라

一、祭文書類의 節減이라 는것으로...

朝鮮辯護士令 改正規則全文 【下】

第三十五條 辯護士會의 會則에는 左의事項을 記載함事

一、名稱及事務所의所在地

二、會의代表者 其他役員의 選擧 任期及 職務 其他役員에關한 規定

三、會議에關한規定

四、朝鮮辯護士試補의實務修習에關한規定

五、辯護士의 風紀에關한 規定

六、會員의 風紀保持에 關한規定

七、無資力者를 爲한 法律扶助에 關한規定

八、會費及 會計에關한 規定

九、會員과 委嘱者間에있어의 紛議의調停에 關한 規定

十、人會及退會에 關한規定

十一、懲戒의申告에 關한規定

十二、會費의徵收에 關한規定

十三、役員에關한規定

第三十六條 辯護士會는 每年 定期總會를開할수잇음

附則

本令은 昭和十一年六月一日부터 此를施行함

日本包圍陣 【上】 大阪朝日新聞社說

中繼放送

蘇聯

態度

寒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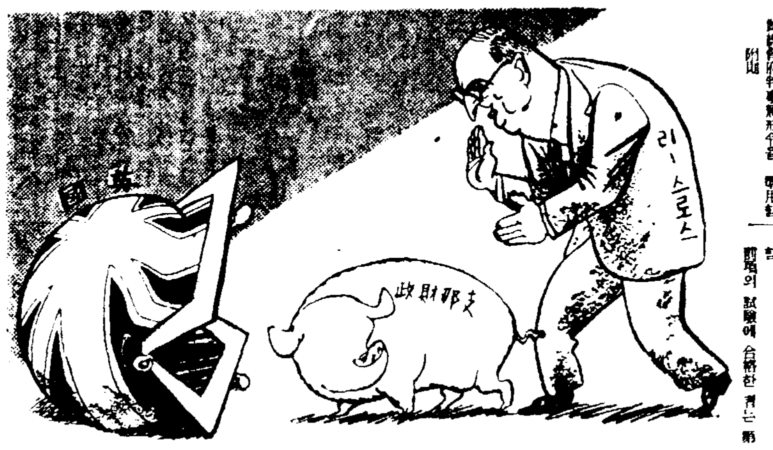
新羅修擴의蹟 (十三)

鄭寅普

三、海防考略 (八)

朝鮮의얼 第二十五

漫畫世界



「리스·로스」의手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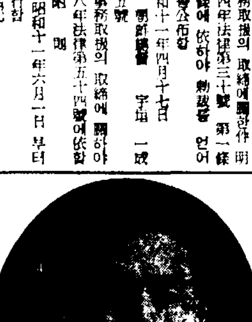
저돈가방에들어가면그만일

—「讀賣新聞」에서轉載—

新刊紹介

◀僧房美人 (尹白南野談集) 定價五十錢 發行所 京城孝悌町 三三〇 新明書林 振替京城六八五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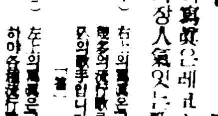
◀精選懸吐警門 定價一圓三十錢 發行所 京城西大門町 二丁目二八 中西書 振替京城二 三大三八番



慢性淋疾의逆療法이 發見되다 이것이最後的療法!

蓄音器界空前祭典 레코一드祭!

누구일까요?



이寫眞은레코一드界에서 가장人氣잇는歌手입니다

엄청나는賞品의贈呈規定

五百名께贈呈하는포一대

品質 堅牢保證付

¥28.00

大東工業商會

創業四十週年記念賣出し

天下一 清酒 菊正宗

新學期男女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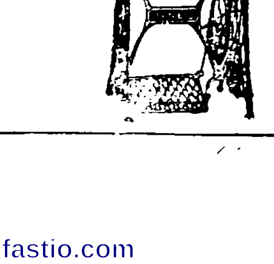
(改訂學則要二錢付)

싱거一 재봉틀

十五種足踏型 九十八圓

十五種手廻型 八十圓

재봉틀賃貸 月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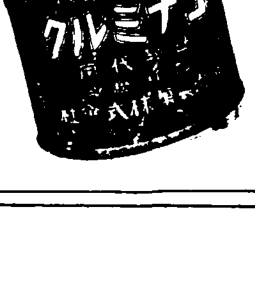
梅 재봉틀 商店

明治(赤罐) コナミルク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法簡便

價格도低廉



半ポンド入 一罐·五十錢

明治製菓株式會社

地方論壇

紳士層에 檄함

扶餘 一記者

무릇 時代를 움즈김은 그외 主體如何보다도 그외人格에 잇다는 것은 否認할수없는事實이다 오직 우리人類社會에 生의存在를 두고 잇는것만이 가장 우리人類의權돈함이 아니고 반드시 人類다운 사람의生活을 하여야만 될것이다. 萬一에 잇어 우리의 一生이 그저無意從食과 生存으로 終止된다면 어찌 萬物之中에 惟人이 最貴라 할수잇으며 飛禽走獸에 달른것이 무엇이냐? 오직 사람은 相當한 人格이 잇으므로써 貴하이 되는것이다. 然이나 現實社會에는 사람노릇이 하던 못하던 衣食만 足하면 有錢이면 萬能이라는 主義로 一進하는者가 그 얼마나 되는가? 勿論有者에도 全然 그러한 人格이 업지는안한바이나 物質文明만을 崇拜하고 個人主義가 跳梁하여가는 今日에 至하여는 그數가 寡하다. 이는 所謂紳士이니 무엇이니 自處하고 무슨議員이니 무슨長이니 하는 띠히 衆人에게 推戴을 밧일만한 그들中에도 더욱이 人格을 차저보기가 極難하거든 況且 物質的으로 비해야 一一히 事論할 아무엇할라 할오직 우리扶餘地方만은 他地方에比하야 加一層 人格者가 稀貴한 感이 잇는것 하다. 그러므로 筆者는 痛嘆한 意見을 여쭈고 敢히 一言코저 한다. 看으라! 諸君! 이는 우리 扶餘地方만을 局限的으로 또는 누구를 指摘하여 諷刺하는바는 아니나 무릇 眞正한 人格은 外表에 잇지안코 絶對로 中心에 在한것이다. 換言하면 제아모리 高貴한 職位와 優秀한 容貌를 가진者 일지라도 그內心이 卑劣하면 賤民이 그를 人格者라고 할수없는 것이다. 如何 事實에 잇어 人格은 地位도 貴富도 아닌 階級과도 關係가 없는것이다.

그러면 人格者란 如何한 人物인가? 그는 이 가장 眞實하여 一口二言치안으며 그意志가 굳세여 自身에 如何한損失이 有할지라도 終始一貫하는 熱烈한 精神의 所有者이라야 한다는것이다 아모리 높은地位에잇는 者일지라도 其實이 不可信이며 그意志가 易變하는者는 卑劣한 人物이라는것보다 事理判定수도 없는바이다. 更言하면如何한事物이던지 定한主見이 有하야 千萬人之中이라도 吾로그 志操를 굳세하가지 百折不屈하는 者이라만 한다는것이다. 諸君 自古及今의 모든偉人을보라! 千人之敵擊과 萬人之反對中에서도 오히려 그初志를 貫徹하여 마츰내 英雄을일우어 成功의結果가 잇지 안는가? 其少한일에도 勇氣가挫折되야 그時性을일코 貧名數만하는 人物은 幾千萬人일지라도 如何한事業도 成就할수없는것이며 如何한 醜聲과 著名에 陷할지라도 오히려 目的한바를 厲行하여 終末까지 奮闘邁進하여야만 事成에 斷乎의大成을 울리게되는 것이다.

끔떤하노니 諸君! 今日의逆境만을 痛歎치말고 明日의成功을圖謀하자! 뿐아니라 大小事를勿論하고 正直하야 忠誠을發하되自我的野心만을 圖하지말고 己任이면 우리社會를爲하야 奮鬪하고 努力할을하자! 여기에서 姓名만을 露出함은 吾人으로서 網羅하려하나 自我의利慾만을 追求하고 一般社會를欺瞞하는者가 우리扶餘社會에도 許多하다. 그는扶餘社會에잇어서는 勿論이요 一般的으로보아도如干한損失이아닌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自身으로서 自己를省察할때마다 남우처럼하며 사드러가는 우리社會를 爲하야 가장必要한 人物이될 眞正한 人格修養에도 着眼努力하기를 切實히 바래는바이다.

◇ ◇

慶北道全般道路에 자갈夫役을또實施

道會에서考慮言明하고도 春窮期住民에大衝動

【대구】 경북도감기(道監)지사의一여일도로에비를주어라는표어로서 본도행정의 특기할한쟁제이 되어 작년가을부터 시행해오는소위도로의 자갈공사는 각처도로 연변의 주민들의 부역으로 一체 부담해온것이라한다.

작년가을의 부역상황을보면 밤같은 굵一한자갈로서 전노면에세치이상을 펴라는것인데 마침자갈이 귀한곳에서는 수十里밖에나가서자갈을 운반해오는데 수여일이 걸리게되어 다대한시일과 경제를 허비하엿슬뿐아니라 인부와 손을 못가진자들은 자갈한「구루마」에 五원이상의대가를 주고사들인 예도불소하여 이부역은 가난한농방사리에도 부담하게되어 매호평균 廿五원가량의 부담숫자를 보이게 된것이라고한다.

이문제로서 금춘개최중의 도의회에서도 각군선출의 의원으로부터 여러한수차를어 질문、공박이잇엇는데 이에대하야 수렵(秋月)토목과장은 그처럼 주민에게 피해가잇으면 고려하겟다고 언명한바잇엇다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당국에서는 五월상순경부터 또다시도내 전반의도로를 통해서 一、二三등도로에 一제자갈 부역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심사까지하기로 됨에 대하야 이에 도로연변의 수민들은 장차 농사 준비의시기를 앞두고 또 과중한 부역을어떠케 감당할가하야 전전긍긍하고 잇다고한다.

小作爭議頻發로 當局은頭痛

【김제】 기보=일반농가에서는 춘경기를 앞두고 생명의 근원인 작농을 진행하는때에 호미를 손에들고 일터를향하야 일년의계교를 준비하는이때에 또다시 소작쟁의가 나날이 격증하야 작년이봉이 우심하게되니 작농가들은 우려를 금치못할뿐더러 이를소정하는 소작위원회에서도 두통거리라한다.

김제군(金堤郡)에서는 一월부터 四월十五일까지에 소작위원회에 접수된 소작쟁의조정신청건수가 무려十二건에 달하엿으므로 그해결을 시키고 지난十六일에 서면으로 당사자를 소집하고 우선二十여건반 제一회 해결하기에 노력하엿으나 범외소정 五건만 남지되고 그나머지는 해결이되엇는데 쟁의원인은 대부분 이동관계와 지주의무리로 변동된것이 만타하며 그후에도 사면에서 매일一二건식 수부된다는바 일반소작농가의 위시도 불만하위협을 느낌은 물론이요 그소작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에 골몰하다고 한다.

梅山校十五週年記念

【순천】 순천매산남녀학교(梅山男女學校)는 개교十五주년 기념식과 배신여학교 十주년근속교원 오예내 박옥신(朴玉信)과 시간교원으로 十주년이된 변애니、마리아、노마리아 이상五씨의 표창식을 지난十五일 오전十시부터 동교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 한다. (사진은기념식)

釜山富民普校中毒事件 兒童들生命은救濟

범인의 엄벌을 당하강남 도당국

劇藥團束을各校에通牒

【부산】 기보=부산부 남부민공보(南富民公普)에서 지난 十六일에 一하년 여생도 十二명이 세탁하는데 사용하는 수산(蓚酸)이라는 극약을 사탕인줄 오인하고 김영섭(金永燮)(九)이라는 아이가 선생의 교실에 책상에서 볼래가지고가 동무들에게 고루분배하야 먹이는데 먹고난뒤에야 담임한 윤봉연(尹鳳連)여선생이 발견하고 대소동을 이르키어 북아미은 아이선부를 봉내 병원에 실고가서 응급치료를하야 생명에는 아무관계가없고 부형들의 경동만 야기케 한사실에 대하야 하교당국자는 법하기를 아이들이 수산을 먹은것은 사실이나 응급치료를하야 다행히 무사하니 만행이라고 하고 수산이라는 약의 성진에 대하여는 설명하여본바 없었고 田마사는 말하기를 수산만으로는 고형체가 되지아니하는 성인데 아이들이 사탕이라고 먹엇다니 아마도 「수산나트리움」인듯한데 먹으면 극히독한것이라고 하고 실험해 생명에도 관계된다고 하는데 도학무과에서는 아무리아동들의 생명에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부형치과 사회에 소동을 이르킨사실이라 하교당국에서 책임을 지지아니할수 없다고 하고 금후에 학교가보통학교에다가 극약등속을 아이들손에엄게 잇는곳에 두지못하게 엄중히 지시를 할방침이라고 한다.

火葬場改修

馬山佛敎振興會

【마산】 마산부민의 대부분이 사용하고잇는 부외산(舞鶴山)밑 호암(虎岩)공동묘지는 一변적이 상당히 광대하나 묘지된 이래로 어느듯 二十여년간을 지냇으므로 협착하여젓다.

그래서 수년전에 一부를 확장하엿으되 그것도 어느듯 좁아서 이대로는수없다하야 약十여년전 마산 불교진흥회(馬山佛敎振興會)에서 자산동(玆山洞)뒷산중복에다 화장장을 설치경영한 일이 잇엇으나 다시 六七년이래로 사용하는이가 없어서과 동시에 건물은 풍마우세에 자연 동결서 사東傾西斜하야 버렷다. 이에 상자 조선사람들도 화장하는 수가 점점 증가하라는것이 사목한 동진흥회에서는 얼마전에 회합한결과 동화장장을 수축키로 결정하고 비용으로 위선 二백원을 기채키로 하엿다 한다.

金堤上水道

十萬圓으로起工

【김제】 김제(金堤)에는 인구만여명의 문명도시에서 음료수문제로 고통을받아오는 김제읍민의 현안이든 상수도는 오래동안의남국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오든바 국고비四만원、지방비四만원、읍비四만원、총공비十二만원예산으로 오는八월경에 착공하기로 되엇다한다.

海雲臺溫泉場 上水道施設

【동래】 동래군 남면(東萊郡南面) 해운대(海雲臺)는 해빈온천장으로서 최근에 피서 또는 피한의 명승지로 선조선에 일흠을 날리게되며 더욱이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개통이후로는 남선 비아저빨건물 보이게되므로 동래군남면당국에서는 장래천도 泉都 대해운대(大海雲臺)건설을 목표하고 시구계획안(市區計劃案)을 세워서 매년 도로시설을 하기로 하엿다하며 또한 음료수문제를 해결코저 상수도시설을 하기로하야 방금 착수하엿다는데 앞으로 멀지안는날에 대해운대의 면모를 가추게되리라 한다.

少女를誘引 暴行타未遂

【진주】 경남진주읍에잇는 천하관(天下館)요리점에잇는 중국산동성(中國山東省)출생 유방본(劉邦本)이라는 중국인은 진주읍 영정(榮町)에사는 최모의딸 최앵화(崔櫻花)(七)양을 꾀어 매월十五원식의 월급을준다고 꾀여가지고는 지난 十三일 오후四시 十五분차로 함안 군북(郡北)까지 다리고가서 그날밤 여관에서 성교를 강요하므로 어린앵화는 무서워울을 이기지못하면서 간신히 모면하여왓다는데 일것을 탐지한 진주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체포하야 十四일 진주서로 압래하고 방금 엄중한 취조를 하는중이라 한다.

龍池公普校 學延基金完納

【김제】 김제군 용지면(金堤郡龍池面) 공립보통학교는 지난소화三년도에 四년제로 겨우 설립되엇으나 동면은 재정상 가장 빈곤한동리아니라 교통이 극히 불편한 관계로 아동교육상 막대한 지장이되어오던바 작년 十二월중순부터 금년도에는 기필고 동하년 연장을 시키려고 노력하야 수차의 면민대회도 열엇으며 동기성회에서는 호별방문으로 면민전체의 심력을 다한 부담금 三천二백원을 완납시켜 금하에는 당국의 허가를 얻기에 각방면으로 평활동을 하고잇다는데 하로바삐 동하년 연장의 허가가 나리기를 고대중이라 한다.

求職三百名에 就職五十名

대구 직업소개소 四월중 통계

◇都市의暗澹相

【대구】 화려한 대도시를 차저온 명낭한희망은 순궁이란 비참한 광경을 이끌고왓다 그리하야 거리마다 실업자무리가 흉수시대를 연출하고잇으니 창백한 그들의압길에는 희망도 무색한것이라 한다.

부내대신정(大新町)에 잇는 부립직업소개소(府立職業紹介所)에서는 금四월一일부터 동十六일까지의 구직자의 통계를보면 실로 백三十九명의 다수에 달하야 동소개소 창립이래의「레코드」를 돌파하엿다는데 이에 취직된자는 겨우 四十五명에 불과하여잇고 또금춘에 소학교를 졸업한 아동 二백여명이 전기소개소에 취직을 의뢰하여왓으나 아주은 겨우 二三十명을 부내의 몃상점에다 시험으로 써보아서 성적과 기능이 우수한아동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견습하는것외에는 모다 입학하야 일할자리가없어서 거리로 헤매이는 실업자로 되여잇다고한다.

순궁을당하야 더할수없는 기근에 쫓들리여 비참한생활을 계속하는 그들의 갈곳은 장차 어디일가? 큰사회문제로 되어잇다고한다.

牛車에치이 五歲兒卽死

【안성】 지난 十四일오후 二시반경 안성군서운면 신흥리(安城郡瑞雲面新興里) 六六번지 조호성(曺鎬成)의 장남인 공수암(孔壽岩)(五)이가 우차(牛車)에 목재(木材)를 실고 주인집에 오든 도중에 동리아이들이 우차에 매어달려서 자난하고잇는것을 압지못하고 우차를 끄을든때문에 그동리 五九번지 이동우(李文宇)씨의 장남 이영의(李英儀)(五)가우차에서 떠러저서 우차와 토담(土墻)사이에 끼어서 즉사하엿다 한다.

공수암은 과실치사(過失致死)의 협의로 안성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는바 어린이를 우차에매어달니는자는 이후로 특히 일반가정에서 주의할필요가잇다 한다

釜谷市場祝賀 各種의餘興

【남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나 산업의 진산으로보나 반드시잇어야 할창녕군 부곡시장(釜谷市場)은 창녕군(昌寧郡) 부곡면장 김병현(金秉顯)씨와 유지 하관석(河貫錫)씨의 노력으로 최근인가가 나렷으므로 오는四월二十四일부터 二일간 성대한개시축하식을 거행할터인데 특히 명창대회 각희대회등 각종여흥이잇어 각지 대회등 각종여흥이잇어

蔚山農校昇格 時期尙早라고不認

期成會委員들은落望

【울산】 울산농업교(蔚山農業校)승격문제는 三十만 울산군민의 농촌교육상으로나 중등교육의 현상으로보아 당연히 요구하며 부르지저야 할문제로써 일즉이 전군민의 요망과 여론을대표하야 울산농교승격기성회를 조직하고 운동을 도에서 경비문제로 실현키어렵다하므로 작년말 이러한 정보를 받은 기성회에서는 기성회 긴급총회를 개최하야 최후단계인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회이를거듭하엿으나 하등 구체적회 결정을 못보고 금년정초에 재차 긴급총회를 소집하야 각기성위원의 사재제공이라는 교육게 희유의 성사의길의를 보아 탐인전부를 거두어 도당국에 제출하야 급속 실현을 신청하엿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금번 들연 도당국으로써 현하 농촌교육의 실제상으로보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울산농교승격문제는 일대암초에 걸리게 되엇다는바 입반은 전기와 같은사정과 경로로보아 너머나 도당국의 무성의함을 비난 미시한함에기한다고한다 희이 자못놀라하는데 방금 기성회에서는제二단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東萊大邊에 普通學院設立

【동래】 초등교육기관의 시설을 완비로말미암아 해마다 늘어가는 입학난의 격심한때를당하야 문맹에서헤매는 아동을구제코 동래군대변항(東萊郡大邊港)에서는 김수봉(金洙鳳)씨와 유지일동이 대변공유재산인 림야二十여정보(시가三천여원가량)를 매각하야 이를 기금으로하고 특지의 의연금을 모집하야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원을 창설코저 방금활동중이라는데 멀지아니하야 실현을 보게되리라고 한다.

燻한水銀의慘禍

二名은卽死、一名은重態

鬱陵島에無知의變事

【대구】 현대문화의 극치를 자랑하는 이땅가관(鬱陵島)도가난한사람에게는 조그마한 혜택도 주지못하는것으로 병마에 신음하는그들은 결국 부득이하나마 무지한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마츰내 여러생명을 빼앗기는 예가 만타고한다.

본적을 강원도통천군통천면통리(通川郡通川面通里)에둔 김정련(金正連)이란노파는 그의딸 이도순(李道順)과 이도순의아들 유순달(柳順達)을 다리고 작년봄에 삼간을 차자서 울릉도(鬱陵島)로 건너가 주모녀가 남의파리로 일을하여 그날그날을 사러오던중 전기이도순은 三년전에 이혼한 그의남편인 전기통천출생 정오화(鄭五花)(四九)란자에게 전염된 매독(梅毒)으로 이래 신음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병세는 더욱심해가고 치료비는없으므로 결국 무지한 가정요법에 의하야 지난十三일오후十一시경 수은(水銀)을 불 화로에피워두고 김주관으로 환자의 코에다 연기를 쏘인것이엇는데 약十분후에 이도순 그의모친 김정연은 현장에서 즉어버리고 유순달만 중태에빠저 신음하는것을 이웃사람이 구원 응급치료중이라고한다.

家庭料理講習

本報金泉支局서

【김천】 경북 김천 금릉유치원(金泉金陵幼稚園)에서는 금번경성 배니야상회 요리연구부에서남조선지방에 순회한을기회로 一반가정부인들에게요리법을보급키위하야본보김천지국후원으로다음과같이가정요리강습회를개최한다는데다수청강하기를바란다고한다.

▲時日 四月十七日부터三日間每日午後一時부터 ▲場所金陵幼稚園 ▲講師林丙秀▲會費無料但實習材料費一日三十錢▲實習科目 支那料理、西洋料理 各種料理製法

路上에서만난"警官" 洞里까지同行奪金

도박행위로 취체한다 하고

咸陽에질긋질긋한强盜

【부산】 지난十五일 오후十二시경 경남 함양군내 교산리(咸陽郡咸陽內校山里) 강욱봉(姜郁鳳)(二十一)이가 동군 서상면 경호리(瑞上面景湖里)에 함양신사방에서 동면백연리(栢淵里) 방태걸(方泰傑)(二五)을 습격하야 자기는 경관인데 아사분북 도박과 절도를 한혐의가잇으니 신체에가진 현금을 전부내노라고 하여으나 피해자는 현금이없다고 하므로 피해자집까지 가서 현주가진원을 강탈도주한것을 함양서에 계출하야 十六일오후五시경에 피착되엇다고 한다.

普校敷地를寄贈

【김제】 김제군 용지면 거야리(金堤郡龍池面巨野里) 황희중(黃熙仲)(二十四)씨는 자기고향인 용지보교후원에 잇는 부지(敷地)一백二十평을 자진하야 동학교에 기부하엿다는데 시가 一백五十원에 달한다는바 一반은 그의특지에감격하여 마지안는다고 한다.

慶南北邑長會議 浦項서開催

【포항】 경상남북도 읍장회의(慶南北邑長會議)는 지난十五일부터 三일간 포항읍(浦項邑) 사무소에서 개최하엿다는데 출석읍장은 경남 울산(蔚山) 동래(東萊) 통영(統營) 김해(金海) 진해(鎭海) 삼천포(三千浦) 진주(晋州) 밀양(密陽) 경북 안동(安東) 김천(金泉) 상주(尙州) 경주(慶州) 포항(浦項) 十三읍장이라하며 중요의안은 읍면동회(邑面洞會)의 조직 등 읍세 설치의건과 재판소 세무서 지원건설도 당연히 국고부담으로 설치하기를 요구하고 지방부담을 과중히 시키는것은 이중과세를 시키는것이나 다름이없다하야 읍민의 부경감을 주장하엿다고 한다.

靑年職工이 鐵道에自殺

【대구】 생활고인지 실연인지, 그의원인조차 알지못할 청년직공의 철도자살이 대구에서 생겻다 한다.

十七일 오전五시경 대구역발북행열차가 부내칠성정(七星町)六五一번지의 지점을 통과할지음에 직공복을입은 청년한명이 뛰어들어 무참히죽어버렷다는데 조사한바에의하면 그는 칠성정六一四번지에잇는 박칠용(朴七用)(二七)으로 부내 대성철공소(大誠鐵工所)에 직공노릇을 하던터이라는바 그의죽은원인은 무엇인지 분명치안하도리가 없다하야 방금조사를 계속중이라고 한다.

東萊有志會合 市場問題討議

시장후보지를결정

【동래】 다년간 동래읍의 현안으로 나려오든 동래읍시장(東萊邑市場)위치문제로서 지난十일오후七시부터 동래읍 일성관(一誠館)에서 지방유지대회가 개최되엇엇다.

동래읍시장은 동래읍에서 소화十一년도예산으로 신축해 제一공보교부지를 매수하야 건설하기로 결정되엇으나 제一공보교부지는 시장위치로서 지형상 동래읍의중앙 고대를 점령케되어 읍민의생장상으는 읍의미관상 매우부적당하다고 근일읍민전체의 여론이 높아지게 되엇다.

그런데 동래읍에서 시장위치를 통소로 결정하게된 경위는 동래제一보교신축재원문제로 부득이 동교부지를 매수하기로 된것인데 최근에와서 동래 범어사(梵魚寺)에서 동부지를 양수하야 유치원과야학교를 시설할의사를 보이게 되므로 이를 기회로하야 다년간 문제이든 시장위치후보지를 토의코저 지방유지대회가 개최된것이라한다.

당야 지방유지회에서 장시간토의한결과 시장후보지로 제一로구동명여교부지(舊東明學校敷地)제二로(앞논들)제三으로 교동근방(校洞近傍)을 정하고 앞으로 실지조사한후에 최적당한것을 동래읍당국과 결정하기로하고 위원으로 김병규(金秉圭)씨외 十四인을 선정하야 시장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엿다한다.

兒童愛護週間

全南道各地에通牒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연례에 의하야 오는五월二일로 八일까지의 一주일동안을 아동애호(兒童愛護)주간으로정하고서 좌기요항을 관내각부군도에 지시하엿다고한다.

一、五월二일로 同八일까지 兒童愛護週間으로할
二、兒童愛護「포스터」를 配布하야 兒童愛護의宣傳에
三、適當한 宣傳印刷物을 頒布할事
四、多人數集合場所를 利用하야 兒童愛護의宣傳할事
五、講演會、座談會、活動寫眞會 母姉會、展覽會等을 開催하며 新聞社와 協力하야 兒童及育兒知識의 普及徹底를 期할事
六、優良兒童表彰、兒童健康相談會、育兒座談會等을 開催하거나或은 適當한 機關、學校로하여금開催케할事
七、交通機關을 利用하야 週間實施宣傳의비라 포스타等을 掲示할事
八、優良한姙産婦保護施設及 兒童保護施設의 紹介를 行할事
九、被虐待兒童、要救護兒童、浮浪兒童 身體虛弱兒童、不良兒童等不良兒童을 保護하며 貧困姙婦를救濟할事
十、赤十字社及愛國婦人會 其他會 學校職員、醫師其他 適當한 人物과 團體를 活動케할事

馬山娼妓自殺

【마산】 마산부 원정(元町)一八三 예업부(藝業部)라는 유곽에 창기로잇는 최추월(崔秋月)은 지난一월경에 三백五十원의 채무에 五년간기한으로 전기 예업부에 오게되엇는바 지난十八일 오후十一시경에 중앙매축지 앞 바다에서 투신자살을 하엿다고 한다 전기 예업부 창기가 작년에도 투신 자살한일이 잇어 더욱세인의 의혹을 자아낸다고한다

會合

◎慶州金融組合第廿七回總代會十五日慶州公普校講堂에서開催
◎金堤金組第二十七回總代會 去十七日金堤郡廳에서開催
◎裡里金組第十六期定期總會十六日同組合樓上에서開催
◎裡里畜產組合第三回定總十九日同組合樓上에서開催
◎安城金組第十八回總代會十五日午後二時 安城安普學校內에서開催
◎安城商業信用株式會社總會 來二十六日午後一時開會
◎安城不二商業株式會社總會 來二十七日午前十一時開會
◎慶州第二金組 第六回總代會十七日 慶州公普校講堂에서開催
◎井邑金組第十三回定總十七日井州邑公普講堂에서開催、組合長은朴興鎭
◎全州金組第十八回定期總代會十七日同組合에서開催
◎慶南酒類聯合會十六日同組合에서開催
◎安城綿織株式會社總會 來二十日午前十一時開會
◎安城商道株式會社總會 來二十一日午後一時開會
◎谷城酒造社大東旅館總會 來二十一日午後一時開會
◎金浦金組定總 十九日公設市場에서 開催
◎南原金組 第七回 總代會 去十四日 同組合에서 開催
◎竹山金組第七回定期總代會去十五日 同事務所에서開催 組合長 李泰榮
◎竹山金組第十七回定時總代會去十五日同組合樓上에서擧行
◎麗水元南金組 第七回定期總代會去十四日 同事務所에서開催
◎鎭海金組 第八回定期總代會去十七日 同事務所에서開催

消息

◎金谷◯氏(湖南銀行監事光支店長) 去十五日新任人事次本報光支局來訪
◎陸◯求氏(湖南銀行員)同上
◎安昌模氏(安城郡守)轉勤人事次 去十三日本報慶州支局來訪
◎洪淳善氏(斗西面長學校新築)赴任人事次本報竹山支局來訪
◎朴◯範氏(忠北道警部補)就任人事次 本報淸州支局來訪
◎金興文氏(元安城郡守) 退官人事次 本報安城支局來訪
◎安昌模氏(安城郡守) 赴任人事次 本報安城支局來訪
◎金曉起氏(鎭川郡守) 赴任人事次本報淸州支局來訪
◎金河圭氏(本報淸州支局長) 淸州郡北面本里自宅에서 歸內報
◎李允世氏(開寧郡守)新任人事次 去十七日本報開城支局來訪

訃音

● 洪城 昨一年間洪城地方의 煙草耕作營農人인데 七十九로 別世.
● 釜山 府內新町二八、金麗洙(二七)는 去十七日朝 性病을 悲觀코 飮毒自殺.
● 金堤 昨今 金堤地方

大邱本報支局春季行事

第二回花園園遊大會開催(主催)

◇時日 五月中 ◇場所 花園遊園地

料理講習會開催(主催)

▲時日 四月二十四、五、六三日間 ▲講師 林丙秀氏 ▲場所 新町本町會館

【東亞日報讀者無料】

靑春座訪問公演(後援)

▲時日 四月二十三日부터四日間 ▲場所 大邱劇場 ▲東亞日報讀者優待

密林 (137)

金末峯 作 鄭玄雄 畫

봄 十五

실흘 갓엇느냐? 나도 더못갓엇다……」

인애는 눈물 구을려 자경의 눈거레한 두팔을 바그럽히 건너다보앗다. 그리고

「그래 어제는 어떠케 드렷볼흔 산ㄷ나」

하고 한그레 우서보엿다.

「응응 사서 산게」

자경은 상만을 도라보고 무슨다 세사람이 자경의집 현관에 달도하자

「자 무슨 먼저 용접실로 드러가서요 나 주방에 잠시단여가리다」

인애는 고개를 끄덕여보이고 상당실로 들어갓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으로놀라운 사실이 인애를기다리고 잇는것이다 표의마레에 무스종이인지 어조그레 호터저잇고 테이블위에는향자를 우벼번 과자처럼 항게볼레처고 안밀러저잇는것은 분명코인애자신이 어제××백화점에서 산 후지기누 와이사쓰가아니냐 인애는 본능적으로 와이사쓰를 한손으로 치켜들엇다 원지인지 와이사쓰 등어리에는 누―러케 손바닥만한 얼룩이 저저잇다.

와이사쓰 옆에는 어제산비취빛 넥타이가 처참하도 생명이끈허진 뱀마치럼 한쯤이 저저잇다.

인애는 형언할수없는 분노와불쾌를때문에 그자리에 꼬구라질것같은 충동을 거우참고 상만을 흘겨보앗다.

인애어머니는 박에사람이 온것을 알고 봉을 이르키여 고개를 내밀엇다

「아유 난누구라고 어서들어오오」

요몃일동안 맘속으로 몹시도 기달리지든 상만이 뜻밧게 문앞에 서서 잇는것을 보자 어머니는 집겁결에서 반색을 하는것이다

「그사이 안령하섯습니까」

상만은 모자를벗고 공손히 허리를 굽혓다

「아이드러오게나 드러와요 어여……좀이야기할것도 잇으니」

어머님은 벼개를 한편으로 치우고 방석도 내려노코 아모조록 상만을 드러오기를 바라는것이다

「오늘은 좀 가볼데가 잇어서요……요다음에또 오겟습니다」

인애의 눈에비치인 이모자는 어제까지도 쓰지안엇든 새모자가 아니냐 방긋쓰고섯잇는 상만의 터이래에서 문한향내를 내고 잇는 빈타이 조끼넘어로 개웃이 내다보이는 와이사쓰! 단연코 새로보는것이다.

「올흔 자경이보낸것이겟지」

인애는 잠잣코 자경의 뒤에서서 대문밖으로 나왓다.

관청밖에는 자경의집 자가용자동차가 유난스럽게 윤이흘르는몸을 가로 누이고잇다.

자경이 밤거룸을 옮길때마다 바삭 바삭 비단옷이 시치는 소리를듣거나 어데인지 엄양스럽게엣든 그엽얼을 보거나 인애의 가슴에서 밝간 반항의 불길이 솟구처올르는 것을 어찌할수 없는 것이다.

「빛나는것 모도가 황금은 아니니……」

인애는 저도몰르게 이러게속으로 부르짓고 상만의 뒤를따라 자동차에 올라탓다.

인애는 차체의 가벼야운 동요를 느끼면서 생각하엿다.

「무엇때문이냐 무엇때문에 내가 자경만못하단말이냐? 자경의 아버지가 사장이요 자경의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잇고 집이크고 살림살이가 화려하고… 다만 그뿐이다 그뿐이다…」

인애는 고개를 똑바로 들엇다.

「그러나 그것이 자경자신은 아니다. 자경한몸을 내한몸과 비하여 본다면」

김에는 사람이 지나가는지 자동차는 김게 경적을울린다.

「한사람의서 자경과 한사람의주 인애를 빼가벗겨 내노은다면? 자경이 건강하나? 나도 그러타 자경이 처녀이나 나도처녀다. 자경이 고등교육을받은녀자나 나도또한 그럿타 자경이 자존(自尊)에이

「이게무슨짓이야요?」

「네」

상만은 어리둥절하여

「이게 무엇이야요?」

「무언이야요 어제내가××백화점에서 상든거이야요 오늘당신께드리려고……그런것을 어제자경과 당신두분이 빼앗서가지안엇서요?」

인애의 바르르떨리는 입술속에서 어더니가 바지직하고 소리가낫다

「아 그럿든가요? 난전연 몰랏는데요」

「……」

「인애씨! 인애씨!」

상만은 당황하여 한손으로 인애의 어깨를 붓들엇다.

「그래! 자경이주는 거탐한 제말이에요?」

인애가 돌도라서서 상만을 노려보앗다.

「인애씨! 오해하지마서요 제를 반든것이 넘무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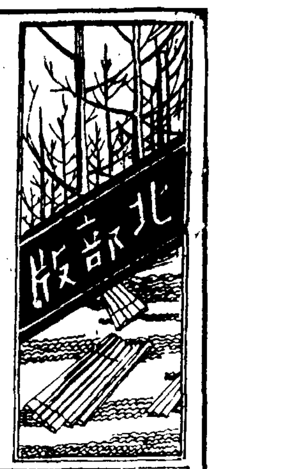
「여보서요……」

인애는 발발떨리는손으로 테블한끗을 부들엇다.

「파한마디만 할테니 똑한마디로만 대답해주서요」

「무슨말슴이어야요?」

상만은 방그레우섯스나 맘속은저이 불안하엿다.



地方論壇

延和金鑛公司의 反省을 促함

八道溝 一記者

轄下 諸鑛을 大體하건대 鑛의 內外를 莫論하고 多數多量한 今日에 職의 要求로 失業者 又는 窮民의 數는 날로달로 增加할 뿐이다.

그런데 八道溝 延和金鑛은 開鑛한지 二十餘年間에 勞働者로 每數千名으로 年產額이 百萬元以上이엇다. 然하야 滿洲國에 잇어서의 期待하던 大鑛山이엇으나 今日에 至하야는 勞働者의 影響조차 보이지 안흐니 其內容의 如何함은 世人이 可知할것이나 內容을 追究하여보면 中華民國時에는 延和金鑛이 官商合辦이어서 土着鑛主의 手中에 들어가고 分鑛業者에게는 自由採掘이라고는 업엇다. 然이나 合辦만은 一分五厘에서 分鑛業者에게 有利한 點도 잇엇다 그런데 滿洲國成立後에는 一分五厘分鑛이 一割三分鑛이 되어 一般分鑛業者의 營業과 社會의 非難도 甚하엿다. 그리하야 結局分鑛料가 적어지고 勞働者도 半數가 失業되엇으나 採掘權은 承認되엇엇다. 分鑛者의 不平은 날이가고 달이갈사록 높아저서 一人以上만 集合하면 언제나 新公司가 되엇으면 하고 그날그날을 企待하엿엇다 그리다가 新公司는 昨年十二月부터 開業하게되엇엇다 分鑛業者나 勞働者나 商民又는 一般住民까지도 死境에서 살길을 찾은듯시 기뻐날뛰엇다. [illegible] 新公司法規下에 淸鄕없이 勞働業者에서는 今後부터는 勞働의길이 생기것으니 우리들도 父母妻子를 保養할 길이 생겻다고하며 勞働業者들은 好事多魔나 한다드시 그리하야 今一月十三日에 新公司로부터 第一次分鑛者會議를 召集하고 如前히 分鑛業者의 權利를 否認하고 今番新公司는 過去兼公司와 如히 分鑛業者의 權利를 [illegible] 無하게 되엇다.

라도 할것이며 分鑛도 三分鑛이라고 宣言하엿으며 同月十八日에 第二次分鑛業者會議를 召集하고 第一次會議席上에서 宣言한 以上으로 明確하게 分鑛은 三分이며 거기 他人의 鑛石搬出을 絕對로 禁止한다 保障하여줄 터이며 諸君의 便利를 어디까지라도 圖謀하여줄터이니 安心하고 業에 專心하라고 宣言하고 [illegible] 以上의 宣言은 新公司 立會下에서 한것인만큼 立會者의 腦에는 印象이 남어잇으리라고 믿는다. 그리하야 分鑛業者들은 其宣言을 確認하고 前年比하야 一倍二倍或은 四五倍씩 鑛業을 擴張하엿다. 따라서 鑛額도 年前以上의 成績을 보게되엇다. 解氷期를 當하야 水門修繕에 奔忙한이때에 新公司에서 第二次分鑛業者會議를 召集하고 只今까지 例가 없을뿐더러 第一二次會議立會下에서 한 宣言과 背反하게 四分鑛、支坑制限、水

車沒收、採掘期限付等을 强要하니 果然 分鑛業者들이 金錢과 一般住民數萬名이 金[illegible]이 어떠한가? 以上의 要求條件을 다 服從한다면 分鑛業者는 勿論 一人도 없을것이오 完全히 生活할 者가 果然 몇몇이나 되겟는가? 더욱이 적은 賃金을 받아 父母妻子를 保養하던 그들은 그나마도 職業을 일케되엇으니 可憐可惜이 아니다 그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業을 삼으니 참 目不忍見이다. 그러니 旣得한 權利를 일치안토록 一致團結하자는 大會이요 生活問題를 解決하자는 大會이요 그들의 旣得權利를 擁護함이요 新公司의 無理한 命令을 反對함이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新公司當局者에게 一言하고저하노니 以上의 四個條件은 必要條件이라고하면 너무나 强壓한 强權的行動이라고 보아진다. 何故오하면 第二會議席上에서 絕對四分鑛을 要求할진대 第一會議席上에서 宣言한 三分鑛이라고 [illegible] 치안코 背反하는 三分鑛이라고

明確하게 宣言하고 分鑛業者들이 數十萬元의 資本을 投하여 意外의 成績을 보게된 今日에와서야 意外의 四分鑛을 强要하는것이 公司의 巧妙한術策이 아니라고 否定치 아니할 수 없다. 萬若 第二次會議時에 四分鑛을 要求하엿을런지 如何間 業者들이 着手안하엿을런지 모르지만 問題가 잇을理가 萬無할것이 아닌가 말이다. 以上 四個條件에 對하여서는 重大하고 殺令 强要함 必要가 잇다할지라도 當局者는 數萬人의 死活問題가 裏面에 잇는것을 念頭에 너치안해서는 아니될것이어날 이러한 點에 對하야서 너무나 等閑히한 것은 不可解한 일이나 一個의 寒村紅鑛業者라 하야 多數의 同鑛業者들과 勞働者를 犧牲시킨다는 것을 어찌 容恕함수 잇으리요? 關係當局者는 마땅히 그들의 反對運動과 陳情에 以上과같은 切實한生存問題가 包含되어잇는 것을 再認하여야할것이다.

집 세궁민의 생활조사에 나타난바와같이 비참이란 형용사로서밖에 표현할수없는 극빈자들로서 궁민들의 늘래임은 지목하는바잇다한다.

新義州第三普校 明年開校計劃

【신의주】 국경도시 신의주는 三년 대발전을함에 따라 현재의 제一、二보교만으로는 그 만흔 취학지원아동을 전부 수용할수없어 금년의 입학상황을 보드라도 지원자九백여명중 三분의 二미만의六백명만이 겨우입학하기를 본 상태이어서 일반은 제三보교설립을 크게 요망하야 원천 열렷든 제二교육부회에서도 정원섭(鄭元燮)씨의안으로 제三보교설립의 건의안을 제출하엿섯는데 부당국에서도 그필요를 통감하야 느끼바잇어 명년도에 개교토록 목하 계획중이라 탐문된다.

李泳根氏美擧

【신의주】 국경장학회(國境獎學會)의 조흔사업에 찬동하야 강원도 강릉읍 금정(江陵邑錦町)이영근(李永根)씨는 수일전 동회에 一百원을기부하엿다.

稅制改革에따른 民衆生活의影響

地方稅改正으로因하야 稅金負擔이過重

호세폐지대신에호별세、가옥세

平南道稅改正實施後反映

【평양】 조선에 세제(稅制)정리가 소화九년도부터 시행되어 제三종소득세(所得稅)의 창설을 보앗거니와 이에 따라 또한 소득세를 중축(中軸)으로한 지방 조세제(稅制)의 개정을 요함에 이르러 평남도에서는 엄마전부터 비에 대하야 고구중이라하든바 개정된 조세부과규정을 금년도四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어이한다.

이에 제一로 눈에 띄우는것은 호별세(戶別稅)로서 재래의 호세(戶稅)가 없어지게되는 그대신에 호별세와 가옥세(家屋稅)외 선세 저 실시를 보게되엇다.

그리고 대정十五년도에 폐지하엿든 어업세(漁業稅)를 금년도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되엇으며 이외에도 광세부가세(鑛稅附加稅) 영업부가세(營業附加稅)등의 새로운 세금이 생겻는데 평남도의 금년도 세금수입의 총예산액은 一백二十九만一천二백二十三원으로 작년도에 비하면 납세호수의 증가 또는 수입의 증가도 잇다할것이나 동 개정세 실시로 말미암아 九만三천二백九十一원의 증수를 볼것이라한다. 이는 오로지 세제 개정에의한 수입의 수자로서 一반의 세납부담액은 의외에도 부쩍 늘게될것이 명약관화이라 나날이 피폐하여가는 농촌에 잇어서는 실로 큰 곤난을 느끼게 될것이라 한다. 이번에 개정실시하게된 평남도세부과(平南道稅賦課)세률은 다음과 갓다.

△地稅附加稅、地稅、百分의 八十△第一種所得稅附加稅、第一種所得稅의 百分의二十一△營業稅附加稅 營業稅의 百分의二十八△鑛稅附加稅 鑛區稅의 百分의七十△戶別稅 現在戶數平均一戶에 九十五錢△家屋稅 別表稅率에依함△林野稅 別表稅率에依함△特別所得稅 [illegible]△屠畜稅 牛一頭에三圓△漁業稅 別表에依함△不動產取得稅 不動產價格의 百分一

된다고 하므로 이상이 도민사十門、방면까지 영향되는때에는 농민에잇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한다.

平壤府內에서만 二分乃至五割增加

◇가방면의 주목을 끌고잇는 府會查定은 來二十日

별항보도와 같이 지방세개정으로 말미암아 가방면에 큰 자극을 줄것인데 이를 평양부내에만 살피어 보더라도 부세전체의 약 二분의 세를증가를 볼것이라한다. 평양부의 금년도 세금예산액은 누호별세가 六만七천七백四十七원、부세(府稅)가 一반경제에 七十만一천원 그리고 제一특별경제 八만八천八백四十二원 제二특별경제 九만九천八백十八원인데 이를 작년도에 비하면 一반부세는 二만四백四十一원의 증가이나 이외에도 제一특별경제에 一만二천八백六十一원、제二특별경제에 三만六천八원의 증가를 보이고잇는바 전술한바와 같이 납세자의 증가 또는 수입의 증가를 예산한다 하나 세금부과률의 작년도에 비하야 부세신세의 一할六분이든것이 一할八분 이 一할증가로서 약간의 예외는 잇다 할지라도 그중에는 五할정도의 증가도잇을터이라 하야 가방면의 주의를 끌고잇거니와 이에 대하야 평양부에서는 오는 二十일경부터 약시부회를 열고 약 一주일에 궁하야 금년도의 부세부과등급사정을 행할것으로 그결과가 대단주목되는 바이다.

日傭勞働者에게도 稅金을 賦課

◇一호수만 六천매이호 그들의生活前途念慮

전기호별세(戶別稅)의 실시에 따라 면세점(免稅點)의 개정까지 하게되엇다는바 이에의하건대 재래의 면세점 연소득五十원미만을 一약 배원으로 인상하야 금년도부터는 면세점이 백원미만에하야 저용할것으로 그날그날의 생명을 유지하야가기 곤난한 세민들까지 세금을 내이게되엇다. 이를 평양부내에 한하야본다면 평양부내의 총인구호수는 四만五백六十四호로서 작년도의 세금부과호수는 一만六천三백十三호이든바 금년도부터는 면세점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과세호수 二만二천四백六十四호 면세호수 一만八천五백배호로 작년에비하야 六천一백五十三호와 금년부터 세금을내게안호면 아니될것으로 되어잇다. 실로 이면세점에서 방황하는 계급들의 생활이란 전편부당에서 지

統制風에 犧牲當하는 지게꾼

【함흥】 도시의 미화(美化)상으로 보아 거리를 서나는 "지게꾼"들에게 통제를 단행하지안흐면 안되겟다는 묘책을 짜내인 함흥경찰에서는 부내가처에 산재하야 그날그날의 밥버리를 하여가는 백명의 "지게꾼"중에서 제一、二차시험하야 七개소에 七十九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미완장(腕章)을 배급하여주엇거니와 이후에도 선발된 사람들은 그래도 생기잇세 지정한 장소에서 손님들의 무거운 짐을받어 기다리고잇거니와 통제의 불결과 아울러 실시를하게되는 一三十명의 지게꾼들은 손님들의 짐을받어 정리와 자격을잇고 시내十六일아침에도 송재산이라고도 불수잇는 생활수단 "지게"를 걷어지고 함흥경찰서문전에 보여잇어서 선분증명서와같은 완장을 교부하여주기를 고대하고잇엇다. 그러나 함흥경찰에서는 부내에 산재한 "지게꾼"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모다 들러보내엿다고한다.

(사진은 지게꾼들)

冷害救濟基礎調查

咸北道서着手

기상、작물、경제등 다각적으로 年來의經驗을土臺로

【나남】 농촌구제에 대한 근본정책이라고 할수 잇는 냉해대책(冷害對策)에 대하야 함북도당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숙고하여오든바 드디어 금년은 적기 상황에 비춘한 시험조사를 완료하고 래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야 냉해 정벌의 깃발을 올리리라는바 금년도에 각종시험할 사항은 다음과 갓다.

一、氣象觀測의 實地應用
가、過去十年間 郡氣象調查
나、四月一日부터 九月三十日까지 一郡 一同 各郡 氣象觀測
二、農事에關한氣候의調查
가、農作物收支狀況調查
나、農作物被害收害에關한調查
다、農家負擔狀況調查
라、耕地狀況調查
마、實行耕種調查
바、副業調查
三、優良品種의普及
가、水稻 나、粟 다、燕麥
四、耐冷作物의普及
가、大麥 나、豌豆 다、大豆 라、馬鈴薯 마、玉蜀黍
五、耕種法의改善
가、耐冷耕種指導圃設置
六、農家經濟組織改善
가、吉州、富寧、茂山、穩城、慶源郡에 一郡二戶式調查農家選定
七、冷害에關한作物栽培試驗
가、各郡에 負하야比較試驗

志願者一萬一千에 四千八百八學

【나남】 함북도학무과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금년도 도내七十八공립보통학교 지원자는 남자八천二백四十五명 녀자二천七백 一명 합계 一만一천十六명인데 입학한 아동은 남자四천三백二명 여자一천五百七十八명합계 四천八백十명에달한다하므로 약五할가량 취학을세우인데 도당국의 년간 계속하야 실행한 一면一교제가 금년에 완성한 기와같은 현상이므로 도당국에서도 계속하야 一면二교제 운동에 착수하리라고한다.

琿春鐵道延長

【나남】 훈춘(琿春)훈융(訓戎)간의 경편철도는 최근 여객과 화물이 모다 격증되어 [illegible]

鑛山盟罷로 生途에大打擊

一천수백명의 호구가 문제 八道溝延和金鑛盟罷

【연길】 간도八도구(間島八道溝)연화금광공사(延和金鑛公司)에서 종업하는 분광업자(分鑛業者)一백卅여명과 및 노동자一천二백여명은 해공사의 가혹한 정책에 대하야 불평을 품고 지난 十일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대표최수길(崔秀吉)외九명은 지난十一일 연길(延吉)에 가서 각요로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다는 말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그 자세한 소식을들으면 매일 一천수三백명의 노동자를 수용하고잇든그 광산(鑛山)엔 지금 폐광상태에일으러 매우 한산한 모양이라 하며 또는 해공사에 전생활을 의탁하고 그날그날을 지내오든 그부근 一천여호의 동포들은 방금호구지책이어려운 형편이라는바 一반은 당국으로부터 급속한 기회내에 원만히 해결이 잇기를 요망하는바라고 운운한다.

志願一千三百 入學者는三百

【나남】 함북도내 금년도 중등학교의 지원자와 입학허가자의 비율을 종합하야 본다면 지원자는 一천三백三十八명이며 입학허가자는 三백十八명이므로 그 약 四대一가량인데 경성농업과 회령상업은 四대一가량이나 된다는바 참고삼아 각학교별로 본다면 다음과같다.

	志願者	入學許可者
鏡城高普	四八〇	一〇五
鏡城農業	二九二	五〇
吉州農業	一八二	五五
會寧商業	二六七	五三
羅南女高	一一七	四五

一部人威脅策動으로 二萬坪畓廢農地境

혈안으로 개답하야 논이 이지경 ◇廿餘貧農連署陳情

【함흥】 함남 정평군주이면(定平郡朱伊面)대룡을 관류하는룡강천(龍江川)물을 이용하야 본시 자비가 천박하든 동면용강리(龍江里)주민 五十여명은 협한을올려가며 강변의 불모지 만여평에 대하야 작년가을에 개답하고저 당국에 강수인용허가원을 제출하고 一부는 이미 개답하게된데에 동용강천하류에서 함주군주지면항수리(咸州郡朱地面項水里)이기벽(李基璧)씨외二명의 공유답천五백평이 자기답의 인수에 배우지장이잇다고 하야 개답한 二만여평을 폐답하라고 위협하고잇다하야 지난十일 룡강리주민 이현태(李賢泰)김국정(金國禎)등 二十명은 연서날인하야 함남도당국에 가긍한사정을 진정한바잇엇다.

그런데 그들의말에의하면 상류에서 새로개답한 一만여평에다인수하고도 오히려 수량은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자기답의토지가 구답이라는것을기화로 수량이 부족하야 인수할수없다고 폐답하도록하라고 위협하고잇으니 당국에서 실지조사하고 공정한해결이 잇기를 애원한다는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국에서 어떠한태도를 취할는지 그 게답여하는 그들 五十여명의 생활에 막대한 관계를 갖어오게되므로 주목된다.

"普校近處에잇는 料亭을移轉하라"

아동교육상 중대문제라하야 淸津淸德校學父兄蹶起

【청진】 청진부 사립청덕학교(私立淸德學校)는 부 사구라천에다가 입분내지인으로 사구라천정(櫻町)이란 큰 요리점은 지난 四월초순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는데 이것은 청덕학교가 소학교인만치 아동교육상 어떠한점으로 보든지 요리점이 갓가이 잇어서는 조치 못하다는 견지에서 학부형을 위시하야 부내유지간에 한동안 설론이 비등해오든바 지난 十四일오후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긴급학부형회를 개최하고 학부형백여명이 지흥하야 이것은 절대로 규명하는동시에 교육문제의 선도를 보아 단연 방지하기로 결의하고 부형중 대표十명을 선정하야 시내조선인부의와 나협한후 제一차로 경찰당국에 진의하기로되어잇다.

이리하야 十五일 다시 학부형 간사회를 소집하는동시에 부당국과 도 청중이 잇을것이라고한다.

羅南女高校舍 五月十日着手

【나남】 함북 유一의 여자 교육기관으로는 하나밖에없는 나남여자고보(羅南女子高普)의 교사는 그간기부금도 완납되어 예정대로 오는五월 중순부터 착수하기로되어 [illegible]

農漁村의沒落相

東海岸農漁村의 主食物은滿洲黍

滿洲粟으로싸서살수없어서 元山港輸入狀況證明

【원산】 각각으로 절박하여가는 동해안 一대 빈농어촌의 춘궁기는 그들로 하여금 쉽에 가장고달픈 한고개를 던저주는것인데 하로 세끼니의 밥을 지금까지는 아무리 춘궁기라 할지라도 만주조(滿洲粟)는 어떠케 먹어오든것인데 금년부터 이만주속조차 가격이 고등하다하야 그보다 값이헐한 만주산 기장이(黍)가 절대다량으로 소비되는 눈물겨운 현상이라고한다.

이제 二월중순이후 오늘까지 원산항(元山港)에 수입된 "만주속" "만주기장" 상황을 조사해보면 "만주속"이 一만五천二十八포(袋)인데 그보다 값이 헐한 "만주기장"은 一만八천四백六十포(袋)라는 연래에없는 신기록을 뵈여주고있다는바 이것은 무팔할것없이 중부동해안一대의 빈농어촌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각一각으로 나저진다는것을 여실히증명하는것이라한다.

平壤都頭山下에서 樂浪의 遺物을 發見

古代都邑의要地가分明

【평양】 옛날조선의 찬연한문화를말하는 낙랑시대(樂浪時代)의 자회로서 귀중한 출토품(出土品)이 입주부터 평양남쪽에잇는 토성리(土城里)일대에서 육속발굴되어 서쪽방면에도 이와함께 낙랑군치지(樂浪郡治址)의 유적이 분명히 남아잇을것이라는 一설이이전부터 돌고잇든바 과연 시가 서쪽에서 낙랑의 유물이 발견되엇다.

이는 수일전 평양고무여자고보생들이 원족(遠足)을간긷에 동교장이 보통강(普通江)대안 요한바 서쪽 도두산(都頭山)그곳 산정에서 낙랑시대의 동그란기와장、편전(片塼)의 기와장 파편등 비롯하여 동군시대의 병(甁)、고구려(高句麗)기와장다수를 발견하엿는데 이외에 당시대(唐時代)의 청동(靑銅)개인총보와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유물인석기(石器)까지 발견되어 매우 흥미를 끌고잇다.

이제 선기 출토품을 종합하여 보건대 도두산 일대는 석기시대부터 당시대(唐時代)에 이르기까지 군사(軍事)、산업(產業)의 요지로서 상당한 도읍을 형성하지 안헛든가 추상되는바가 만타고한다.

曙光보인三成義塾 敎舍를新築

【강동】 강동군 만달면 파릉리(江東郡晩達面巴陵里)삼성의숙(三成義塾)은 신춘을 따지하아 지방인사의 의연금을 기초로 평장한교사를 신축한다는데 전기의숙은 일정한재단 없이 창립된 의숙이라 아직까지 삼간토옥에 본라하을 면치못하엿으나 일하난에 시탄리고 배움에 목마른 모든어린이들은 나도나도하고 이 의숙을차저들게 되여 지금은 百으로명수를 산하게되고 아하지 합하면 一百五十명가량이나 된다고한다.

그러므로 지금에 잇는 교실로는 도저히 이학생을 수용키 어려우므로 의숙원장되는 김병두(金炳斗)씨는 진심진력으로 노력하야 김홍연(金弘淵)여사에게 기지(基地)를 얻어 三、四백원경비로 교사건축에 착수하야 五월중순에는 완성되리라 한다.

元山春期大淸潔

【원산】 지난번 회유의 대강설로 연기되엇든원산(元山)에 춘기대소제는 오는五월四일부터 六일간계속하야 아래와같이 시행된다고 한다.

四日 旭町、海岸通一、二、三、四、榮町、錦町
五日 上里一洞、中里一、二、三、四洞、橋下洞、北村洞、南下洞、新村洞、下村洞
六日 春日町、仲町一、二、三、四、本町一、二、三、四、泉町一、二、三、四
七日 綠町、大和町、臥牛里、新豐里、栗町、本町五、海岸通五
八日 銘石洞、廣石洞、上洞
九日 山手洞、南村洞、上里二洞、海岸通六、北村洞、新興洞、敷洞

會合

◇高原金融組合 定期總會는 來二十一日 同組合事務所에서 開催
◇宜川商業實修學校開校式 來四月十五日 同校大講堂에서 擧行
◇宜川金融組合定期總代會 來四月十八日宜川公會堂에서開催

須信

●高原 高原郵便所에서는 [illegible]
●宣川 去十七日 [illegible]에서 大火 [illegible] 沐浴中 [illegible] 人命死傷은 全無。
●新義州 眞砂町 [illegible]
●咸興 本町에서 天然痘患者三名이 發生、一名은 死亡。
●黃州 去十六日 黃州面 城南里 김소사집에서 發火 [illegible]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暈 子宮癌腫
히스테리 輪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陰神經衰弱과產前產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illegible] 二十日分 [illegible] 三十五日分 [illegible]

命之母本舖·笹岡藥房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대하증이三週分에 全快되어姙娠햇소

[illegible]

자랑할만한 子宮病藥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推奬한 內服藥·命之母 外用藥오기나球

△대하증의 原因과治療法

[illegible]

景品附

全朝鮮和信連鎖店聯合春期大賣出

自四月二十日
至五月十八日

和

抽籤은六月一日京城本社에서行하야當籤者를四日附本報에發表함

일원어치사시면 황소한마리!

景品種目

● 當籤者希望에依하야以下各等種目中에서一品進呈。
● 等外까지空籤은一枚도無함

特等十本　白米、農牛一頭、家具一式
一等五〇本　洋服檣、自轉車、盤床
二等一〇〇本　メリヤス上下組、化粧品函
三等一〇〇〇本　洋襪、針十箱、ハンドバッグ
等外全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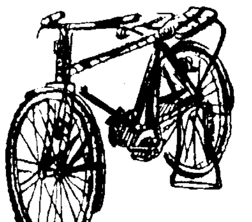
● 右記景品外에景品券每二萬枚增加에對하야特等一本、一等五本、二等十本、三等百本 比例로增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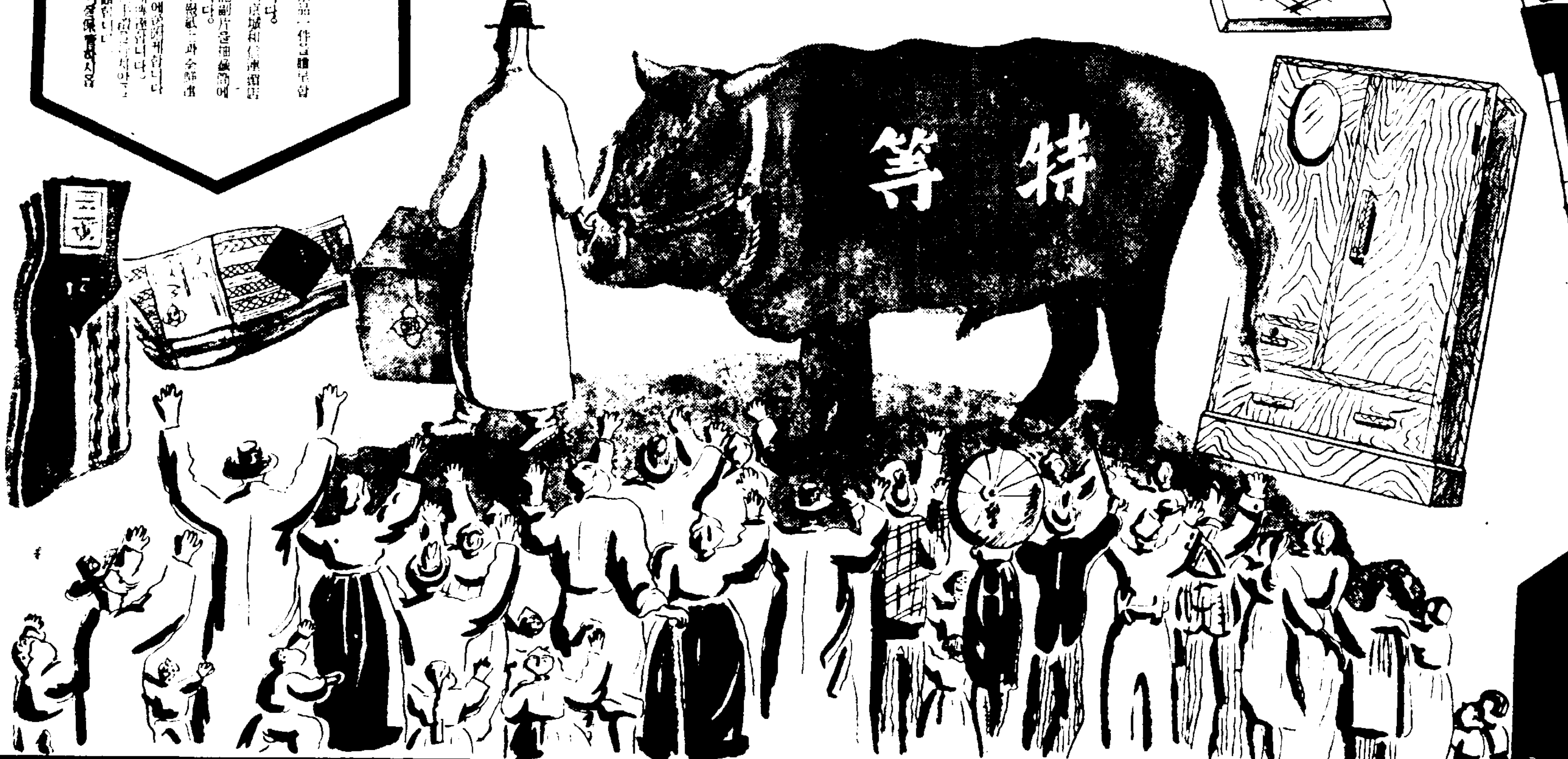
最新流行品具備

와이샤쓰、넥타이、빠자마스、內衣、따파숄、핸드빽、숄、中折帽子、鳥打帽子、學生帽、小兒帽、運動靴、幼兒用品、婦人用品、和信잉크、和信萬年筆、和信鉛筆、和信高級化粧品、內外有名化粧品、進物用菓子、罐詰、味の素、洋襪、스타킹、旣成服、小兒洋服、學生服、其他日用品은무엇이던지具備되엿습니다

進呈方法

◇金一圓買上에景品券一枚를進呈합니다。
◇金二十錢買上에補助券一枚를進呈합니다。
◇補助券五枚를가저오시면景品券一枚及等外景品一件을進呈합니다。
◇景品券에는一一히番號와契印이찍히어잇습니다。
◇景品券의副片에도景品券과同一한番號를찍어京城和信連鎖店株式會社本社에保管하여둡니다。
◇抽籤은昭和十一年六月一日京城本社에서前記副片을抽籤箱에너허가지고新聞記者及會衆立會下에行합니다。
◇當籤番號는六月四日附本報紙上과各連鎖店頭에揭示發表합니다。
◇當籤者는當籤券을所屬連鎖店을經由하야本社에送付케합니다。
◇景品은所屬連鎖店을經由하야各當籤者에게送付합니다。
◇昭和十一年七月末日까지當籤者로서景品을請求치아니하고 [illegible]
◇景品券은 [illegible]





갑사고.. 조흔물건은..
全朝鮮和信連鎖店으로

科學데이

現代와自然科學
科學的精神의涵養

現代文明과 文化가 거의全部科學―自然科學의 恩惠에 依한것임은 [illegible] 高度의時代라고 하는것도 [illegible] 우리의 生存과 繁榮을 [illegible]

우리는 사람으로 그러한 科學 [illegible] 生活化가 되어잇지아니타. 그리하야 「科學知識을 普及하자」하는 소리가 와 쳐지는 오래다. [illegible] 우리는 [illegible] 바라서 마지안는다.

그러나 現在 世界를 살펴볼때 이러한 「科學의 應用」이 果然 眞人에게 미치고잇으며 또 [illegible] 科學이 人類의 [illegible] 생각하야보아야한다.

[illegible] 科學及 技術의 發達이 人類의 歷史生活에 잇어서 社會的으로 決定되는것이니만치 그것의 [illegible] 現代와 같이 [illegible] 文明의 利器가 [illegible]

如何히 高度로 發達한 科學의 [illegible] 그것을 生產하고 [illegible] 目的과 手段에따라 [illegible]

[illegible] 朝鮮에서 科學데이가 [illegible] 今年으로써 第三回에 [illegible] 바라서 마지안는바이다.

發聲印刷物이야기
알젠친의 一技師가發明
新聞에는音聲版附錄
베―도벤의交響樂도 單十錢에살수잇다!

發聲印刷物(스피킹프린트)이 發明되엿다. 昨年十月末[illegible] 決코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이 發聲印刷物은 高周波[illegible] 레코드[illegible] 印刷하면 [illegible]

普通新聞紙에도印刷할수

[illegible] 將來에는 新聞에도 [illegible] 그대로 [illegible] 한다.

그러면 이 印刷物로 [illegible]

發送裝置와

[illegible] 光線의 强弱에 [illegible] 電流가 흐르게되므로 이 電流를 擴大하여서 [illegible] 音聲을 [illegible]

가까운將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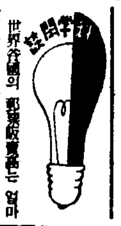
[illegible] (Fotoliptofono)라고 命名하엿고 [illegible] 新聞에 音聲版이 附錄으로 [illegible]

科學데이의由來

今四月十九日은 「科學데이」라하야 科學知識의 普及을 爲하야 [illegible] 實로서 科學朝鮮의 明日을 爲하야 [illegible] 그 由來를 적어 [illegible]

[illegible] 科學데이의 實行會에서 [illegible] 第三回로서 [illegible] 再昨年二月二十八日에 發起 [illegible]

[illegible] 社會學、經濟學等에 [illegible]



寫眞術의發達
單色寫眞에서天然色寫眞에
申樂均

◇…우리는 「寫眞」을 [illegible] 寫眞術이 發明되기前에는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大體 그 [illegible]

◇…其外에 [illegible]

◇…이것이 寫眞術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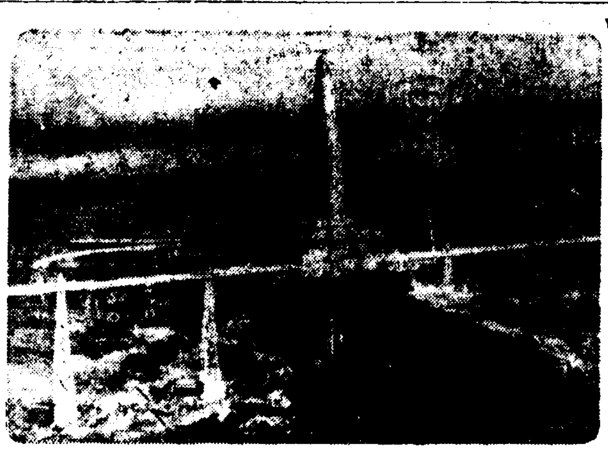
小說黎明期今日休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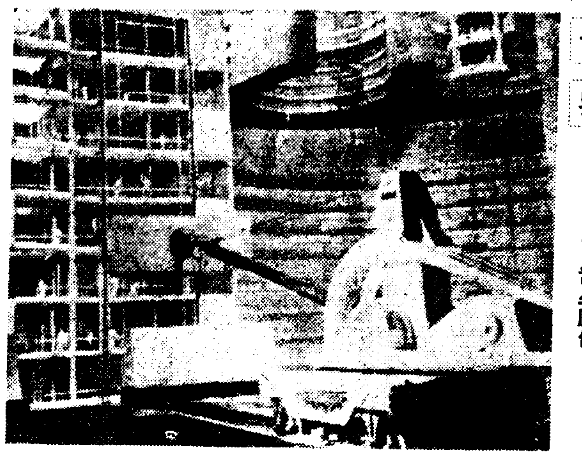
將來의世界
H·G·웰스原作

英國의 有名한 科學小說家인 同時에 思想家인 H·G·웰스氏는 最近에 「將來의 世界」라는 科學小說을 發表하엿는데 이번에 그 著書를 런던·필름·프로덕슌會社에 依하야 映畫化하여 上映되엿다 한다.

그 映畫에 依하면 一九四○年에는 第二次世界大戰이 이러나서 現代文化는 全然破滅에 도라간다. 그러고는 大流行病이 暴威를 휘둘러 四十年間의 野蠻時代가 繼續된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新未開的인 時代를 突破하고 사러난 技師와 飛行家에 依하야 戰爭없는 新文化의 時代가 建設된다는것이다.

이 寫眞은 「映畫의 스틸」인데 (上)은 月世界探險의 로케트發射機. (下)는 山腹에 建設된 地下都市의 建築으로 巨大한 機械로써 掘鑿을 하는것이다.





朝鮮産植物의分類
過去諸外國人의實地採集
(上) 都逢涉

一九三五年度에 發見된 朝鮮産新植物二種에 對하야 特記하고저 하나 그보다 먼저 [illegible] 朝鮮植物에 對하야 [illegible] 諸外國人이엇다. 李朝五百年間 우리朝鮮의 首都 京城을 中心으로 內外國博物學者 [illegible] 名數가 研究의 目的을 가지고 來訪하엿다. 그中 一八八三年 [illegible] 一八八九年 [illegible] 一九○一年 內山氏 一九一七―一九一八年 [illegible] 一九二八年 코마로프氏等 [illegible] 一九○五 [illegible]

□ □ □

朝鮮北端 白頭山植物은 一八八六年에 [illegible] Mountain」이라 [illegible]

□ □ □

朝鮮南端 濟州島植物은 一九○四―一九○五年 [illegible] 佛國宣敎師 [illegible]

□ □ □

其他 金剛山、智異山、白羊山 [illegible] 等 [illegible]

科學데이 푸로그람

◇四月十九日=午後二時 自動車行列
◇四月十九日=午後七時 發明家表彰式(府民館)
◇四月十九日=午後八時 科學講演會(府民館)
演題와講士
◇發明과 [illegible]
◇로―키의原理 [illegible]
◇最新科學과지에스테스 [illegible]
◇四月二十一日 科學活動寫眞上映(入場無料) 午後八時 市內[illegible]校
◇四月二十二日 科學活動寫眞上映(入場無料) 午後八時 市內[illegible]校
◇四月二十三日 科學活動寫眞上映(入場無料) 午後八時 市內[illegible]
◇四月二十五日 午前十一時부터 (科學館、[illegible]、京城放送局、[illegible])

婦人公論 五月號(定價五十錢 普通号通り)

本日發賣!!

從弟野中元大尉の妻美保子さんへ (血縁の一人として) 南部修太郎

迷信と貞操 中島健蔵
時事總評 杉山平助
小さな聲(飯倉だより) 島崎藤村
花岡山殉教碑(山王雜話) 德富猪一郎
新しき教養について 谷川徹三

毎号賣切の盛況・今月もどうぞお早く!!

涙と戰慄につゞる二・二六事件の全貌
□牧野前内府に從ひて 森鈴枝
□岡田前首相脫出の眞相
□首相官邸にありて 秋本さく
□感激のエピソード

ある女の手記 影の
つきまとふ翳 大河冴子
佗しい偽装 野中愛子
母を恨みつゝ 堺喜美子
(批判)影のある女 今井邦子

或る友への手紙 山本安英
妻をうたへる詩歌 森山啓
大作『夜明け前』物語 山崎斌
歐洲の暴風雨前夜 澤列
ふるさとの若き女性へ 森田たま
親友大坪さんの自殺 藤原ゆき
作家牧野の死 下村千秋
子は母のもの (批判) 河崎なつ
家出する娘たち 瀬戸口寅雄
思春期の生理學 吉岡一行
春はバスに乘って 式場隆三郎
巴里ッ子アンナ・ベラ (世界女優物語 第三回) 横山隆一
インチキ宗教の靈術ネタ明し 青木光三
娘の結婚 石川雅章
純愛の手紙 德田秋聲
一寸した不注意から愛兒を死なせた經驗 北川三郎

女の日記 林芙美子
お嬢さん 吉屋信子
桃子の貞操 宇野千代
くれなゐ 窪川稻子
男の一生 松本泰夫妻
金の鍵の匣 里見弴

獄舍よ 德田榮子

雪よりも白き二人 遺稿愛愁詩篇 高見愛子

洋裝の花嫁
洋風結婚樣式一切の知識
□結婚式のお花裝飾
□新婚旅行支度と心得
花嫁のお作法

新時代の花嫁には洋裝の式服をウエディング・ドレスの發算の立て方 田中千代
花嫁の式服 小松通允・村岡花子

□外傷性癲癇で愛兒を奪はれて
□朝鮮國境の片田舍で羅つて
□偏食と病氣に慣れすぎた親子
□一寸との隙に熱湯をあびて
□母の不注意からトラックに劘れて
□健康を過信して旅先で疫痢に死なす
□同情心が仇となり殺された吾が子

中央公論社 丸ビル五階

스포ー츠

人生의 [illegible]的認識

金 恩 培

[illegible]

野球百年祭

一九三九年이 그해

[illegible]

女選手가 男子로

女性時代의 優勝盃와 記錄

쓸데없다고 全部拋棄

[illegible]

運動用具를 統制

滿洲國體聯에서

[illegible]

鐵道87 培材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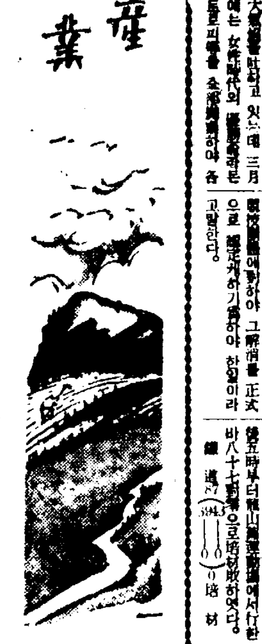
[illegible]

산업

細農民을 爲한 叺販賣改善問題 【下】

孫 東 滿

[illegible]



全南 昨年林產額 一千百五十萬圓

比前四十餘萬圓增加

[illegible]

物產別	生產高
竹材	一二六、七八九圓
薪	四、七七二、五一〇
枝葉	二、五七八、八八九
其他燃料	一、八七五、二〇〇
綠肥	四八九、二〇七
堆肥原料	九九三、三七六
飼料	七〇、六四三
木炭(各種)	一六二、〇七三
種實	五四、二二三
竹筍	五、〇七二
蘑蕈	五九、五八八
漆液	一、〇〇〇
松脂	一二
아베마끼樹皮	七一四
竹皮	三六一
山野菜	二四、九三八
藥草	四二、一八六
染料	二五〇
五倍子	二、八二七
土石類	二六〇、一三一
其他	一四、七七一
合計	一一、五三四、九五九

電球、琺瑯 輸出檢査擴充

[illegible]

中國產大量輸入으로 永興簞子界大混亂

[illegible]

南朝鮮簞子社基地 裡里等三處에物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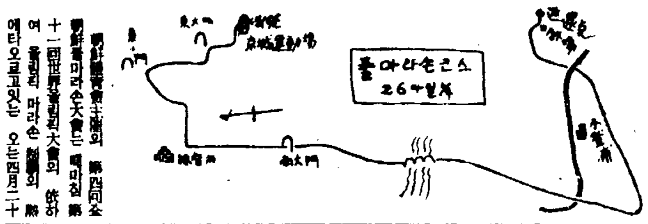
산업구락부

船舶用發動機製作所及販賣所

[illegible]

晉州의 特產地

[illegible]



풀마라손大會

參加申請은 二十四日까지

出發은二十六日正午

[illegible]

올림픽陸上 朝鮮豫選

五月九、十日

[illegible]

피림픽뉴스

[illegible]

法政18 慶應1

明大5 A 東大4

[illegible]

今日의運動

[illegible]

法律顧問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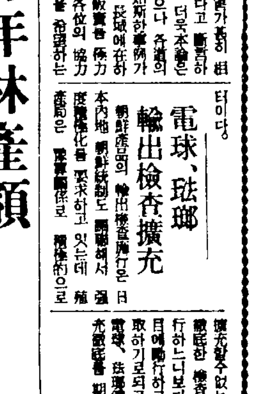
鑛業權動靜

鑛業着手屆

[illegible]

鑛業代理人屆

[illegible]



瘦瘠蒼白한顏色이

조케되고몸에힘이넘친다

[illegible] 永井文一郎

[illegible]

小瓶進呈

[illegible]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胃腸衰弱한분
◆強壯強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븐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憔悴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恢復期

信州伊那の谷名產
養命酒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슴

根氣와體力이強하고
숨도안차고 버틸수잇다
如何히버티랴고해도動悸와숨참이激甚하여지고身體가疲勞하야아무래도練習을繼續할수없어煩惱하고잇엇는데滋養強壯劑인養命酒를먹기始作하면서는根氣가強해지고體力을더하며넘치는元氣로아모리試合을繼續하여도숨이차지안코버틸수잇고몸이이만큼튼튼하고이만큼鍛練이進境을보이게된것도常時養命酒를愛飮한德澤이다。

ClibPDF - www.fastio.com